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5일)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2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27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사진은 '부석사 오불회 괘불(보물)' 앞에서 내빈이 개막 테이프 컷팅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10면〉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법인 동국대 건학위 "악의적 선동 엄중 대처"

건학위원장 · 총장 명의 입장문
장학금 지급 확대 등 성과 뚜렷
초중고 법당 개선으로 심신 고취
"근거없는 비방, 학교 발전 저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최근 일부단체의 건학위 해체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8월 25일 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교 발전에 대한 성과가 뚜렷한 건학위에 대한 악의적 선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건학위는 "교육 환경의 변화로 종립학교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4월 건학위원회를 출범했다"고 건학위원회의 출범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

건학위에 따르면 출범 당시 자승 스님이 제시한 건학위의 목표는 '동국대의 발전이 곧 불교의 중흥이고, 불교중흥이 곧 대학의 발전'으로, 자승 스님이 솔선해 장학기금 10억여 원을 기탁해 바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연계해 학교와 사찰, 동문들이 30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전액장학생 35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됐으며, 지역미래불자 장학금도 2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

동국대 건학위는 "장학사업의 활성화로 학교 설립의 취지와 건학의 의미가 되살아나 많은 사찰의 스님과 불자들, 동국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의 혁신과 동국건학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정체성 확립은 건학위원회가 가야할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학위가 추진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당 개선은 전통문화와 불교소양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편안하게 전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전국의 불교계 초 · 중 · 고등학교를 연계해 청소년 인재불사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건학위는 위원회의 명확한 활동과 성취에 대해 왜곡하는 선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건학위는 "위원회의 활동과 성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훼손하는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학위원회의 결실로서 유익함을 나누고 있는 학교와 여러 기관의 노력을 폄훼하고 학업의 용기를 북돋아 가고 있는 학생들의 의욕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은 물론, 불자이고 동국의 동문 가족이라면 지금의 변화에 더 마음을 열고 늘 그래왔듯이 관심과 격려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보수·방재 자부담, 이번엔 '폐지'될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보고서 지적
전통사찰 재정 악화 고려해
자부담 20%서 10%로 완화
"일시 경감 아닌 폐지 필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시에는
비용 확보어려움으로 포기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선결과제로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시 자부담률 폐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보수 · 방재사업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당시 불교 공약의 하나로 '자부담률 철폐'를 제시했던 만큼, 지난 30여년 동안 전통사찰에 재정적 고충을 안겨온 자부담제도가 이번엔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자부담률의 일시적인 경감조치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심사보고서는 특히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고,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의 자부담률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통사찰들은 사찰 유지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예산의 20%가 자부담으로 책정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어 왔다.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라는 자부담 비율이 책정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한데다, 국가가 보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자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건축물인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센서 등을 설치, 화재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훼손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전통사찰 중 상주 황령사와 대구 내원암 등 2곳이 자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현재까지 방재시스템 미구축 전통사찰 대부분이 자부담 비용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전통사찰에 해당돼 사업완료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통사찰과 관련한 보수정비 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전통사찰 관련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부담률이 0%인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사업의 자부담률은 20%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국가가 지정하는 사찰로, 지정시 부동산 양도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지니고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인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부담률이 없는 반면, 전통사찰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시 자부담률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건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인사 '국민힐링 프로젝트' 연다

9월 6일부터 템플스테이, 10월 9일 국민콘서트 개최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코로나19 팬더믹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지친 국민들을 위한 '국민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합천 해인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국민힐링 프로젝트'로 '국민힐링 해인사 템플스테이'와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는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동과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서 열리며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청소년 등 약 200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예약은 해인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참가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건설예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해 마음과 몸을 힐링하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운스님 주지 취임을 환영합니다



- 범어사관음회
- 범어사다도회
- 범어사합창단
- 범어사보현회
- 범어사토요참선회
- 범어사금정총림포교사회
- 범어사어린이법회자모회
- 범어사어린이합창단후원회
-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울경법우회

범어사 신행단체 일동 합장

선림원 재가수행자, 대원 대종사에 법을 묻다

〈조계종 원로의장〉

조계사 선림원, 8월 24~25일 대웅전서 철야정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일환

300여 대중 3년만에 모여

원로의장 직접법문 이례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산승에게 선에 대해 말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오늘 이 산승이 학림사 절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선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마쳤습니다. 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렁찬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수행정진해 온 선림원 재가불자들이 철야용맹정진을 앞두고 대원 대종사를 초청해 참선수행의 길, 그리고 법을 묻는 법석에서다.

조계사(주지 지현) 재가수행모임인 선림원(선림원장 남전)은 8월 24~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학산대원 대종사 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선림원은 2011년 간화선 교육과 실참을 통한 재가수행모임으로 개원한 이래, 매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중단된 바 있다. 이날 법석은 선림회 동문이 3년만에 한자리에 모인 선지식 초청 법회일 뿐 아니라, 조계종 원로의장 스님이 직접 설법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선이란 것은 문자를 떠난 차원의 세계라서 오늘 산승이 이 자리에서 선이 어떻다 말로하고 이야기 하게 되면 바로 저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또한 큰 허물을 짊어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상에 오른 대원 대종사는 첫 마디부터 주장자를 들어 말 없는 법을 전하는 뜻을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산승이 묵연히 앉았다가 여러분을 보고 법상에서 내려와 떠나야 옳겠지만, 입을 열고 말을 했으니 허물이 적지 않다"며 "선을 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부득이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재세 당시 일화 하나를 전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들을 차에 부처님께서 법상 위에 가만히 말없이 앉았다. 이윽고 대중과 함께 앉았던 문수보살이 일어나 "오늘 법 안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법왕의 법은 마쳤습니다"라며 죽비를 치고 퇴장했다. 이어 말없이 법상에서 내려온 부처님께 아난존자가 연유를 묻자 "내가 묵연히 앉은 이유를 상상근기인은 안다"고 답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수행정진해 온 선림원 재가불자들이 철야용맹정진을 앞두고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를 초청해 법문을 청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기는 어떠하십니까? 상근기요, 중근기요, 하근기요."

대원 대종사의 질문은 곧장 선문답으로 이어졌다. 대종사는 묻고 대중들은 답하는 과정에서 때론 웃음이, 때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원 대종사는 과감한 대답에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틀렸다. 공부 더 하라"는 말로 죽비를 내리기도 했다.

"자고 일어난 남편이 부인을 보더니 눈을 꿈쩍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먼길을 간 남편이 서리를 맞고 고생을 해 기진맥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연유를 묻자 가슴만 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저기서 답변들이 쏟아졌다. 한동안 대중들의 답변을 듣던 대종사가 입을 열었다.

"참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심전심의 알아차림이 오늘 하나도 안되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눈 마주치면 척척 알아차려야지. 오늘 대중들이 수행 좀 했다고 들었는데 헛참선 한 것 아닙니까.(웃음)"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대종사의 입을 거쳐 곧 법문이 됐고, 대중들은 합장한 채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대종사는 "여러분이 참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 즉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항시 번뇌와 망상이란 이름의 도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디. 이어 "화두가 일념으로 이어지면 살고 화두가 끊기면 죽은 물건이니 산 사람이 아니다"고 설한 대종사는 "마음이라 함은 그 어떠한 물건도 아니니 여러분이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며 "망상이 탁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는 놈이 무엇인고 참구하다보면 대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1시간 여 이어진 법문에 이어 대종사는 대중들에게 화두첩을 수여한데 이어, 입선죽비로 수행자들의 실참수행을 독려했다. 철야정진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45분 정진, 30분 방선으로 이어졌다.

법문에 앞서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 감로법을 전해주실 학산대원 대종사는 출재가 참선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지식"이라며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화두와 법음의 참뜻을 얻기 위해 부단히 정진, 또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문화관광위원장 "불교공약 챙길 것"

8월 24일 원행 스님 예방서

홍익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불교현안 관련 법안들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8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문화 보존 관련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계에서 기후위기 극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에 나서주시는 만큼 관련 예산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스님이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대정부 관련 사안을 잘 챙길 것"이라며 "전통문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원행 스님에 "지난 4년간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홍익표 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비구니종회의원 후보, 공명선거로 선출

첫 공식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전국비구니회, 8월 24일

선거철차 후보등록 마감

9월 15일 운영위원 선거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의원 10석에 출마할 후보를 내부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이는 비구니 종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8월 15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절차를 공고한데 이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및 회칙에 근거한 절차로,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이 공식선거 절차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해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그동안 비구니 후보는 내부논의를 통해 추천돼 왔으나, 이번에는 종회의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누구나 후보로 출마하고 선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7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위원회가 선거절차를 확정, 공고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위원회는 8월 30일 후보 명부를 공개하고 9월 2일 오후 1시 2차 회의를 열어 접수된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한다. 선거기간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개별 선거운동 없이 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서류를 선거인단인 운영위원회에 2회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는 9월 15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후보 10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가 10월 13일 예정된 만큼, 사전 선거를 통해 추천후보를 확정해 종단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서류등록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르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무기관 및 전국비구니회 종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포교 · 사회활동 및 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단에 기여한 경력,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 선원에서 5안거 이상 성만, 승가대학 · 율원 및 교직자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출 경우 자격을 갖는다. 송지희 기자

한국불자네트워크 출범…관문사서 첫 법회

8월 20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첫 초청 법사로

이사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각 분야 지식인 60여명 참여

불자 · 비불자간 교류 토대로

각 분야에서 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조직 '한국불자네트워크' 를 출범했다. 첫 공식법문에 나선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을 잇고 미래를 계승하기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자네트워크는 8월 20일 우면산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초청 특별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직 출범에 기해 마련된 자리로, 60여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첫 법석으로 의미를 더했다.〈사진〉



한국불자네트워크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을 이사장으로,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를 상임대표로 운영된다. 출범을 주도한 홍승기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불자네트워크는 종교와 출신, 연령 모두 고르게 분포돼 한국불교 발전과 사회화합을 위해 지혜를 교류하는 지식인교류모임으로 추진됐다"며 "특히 회원의 종교비율이 불자와 비불자 반반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는 분들로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고 지혜를 모아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불교는 대중성과 포용성을 갖고 일반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지는 종교가 돼야 한다"며 "한국불자네트워크가 종교를 넘어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백도웅 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는 "상생하고 화합하는 종교인들의 만남은 우리사회 갈등을 방지하는 계기"라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원 스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불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회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2023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6(2022)년 8월 3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경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산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2년 9월	2022년 9~10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3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지원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9월 8일(목) ~ 9월 19일(월)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3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indrajs@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양진수(전화: 02-2031-2033)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신청기한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사회적 약자 아픔 끝까지 함께 할 터”

사노위, 8월 24일 10주년 기념식

사부대중 모여 그동안 노고 축하
지몽 스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 이어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노동과 빈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억압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난한 이,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오는 날까지 거리에서 기도의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부처님 자비와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는 법석을 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기념식은 10년간 사노위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 자리이자 성찰의 자리였다. 법석에 모인 이들은 1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축하공연도 선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노위가 부처님 정법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구심점이 돼 준 것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원행 스님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시기, 사노위 출범은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면서 “조계종은 사노위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불교의 대승보살 정신을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년 동안 변함없이 사노위와 함께 현장을 지켜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사회노동위 10주년 기념식.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10년간 사노위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참여를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동안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지몽 스님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서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묵묵히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함께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사회구조적인 사회업((社會業) 역시 조금씩 녹아날 것이며, 그 아픔과 고통이 녹아난 자리는 분명히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사노위와 함께한 단체들의 축하인사와 공연이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10년 전, 사노위를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 지부장은 “2012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가 대두됐을 때,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단식 농성 천막에 찾아와 따듯하게 손잡아 준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지난 10년간 성과를 만들어가는 작은 과정 하나하나를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앞으로도 사노위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축하 인사도 영상으로 이어졌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천주교 서울교구노동사목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 하겠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다” “코로나19와 힘든 정치상황 속에서 더욱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입을 모았다.

기념식은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부대중은 단상에 오른 활동가들의 목탁에 맞춰 ‘비정규직 철폐하자’ ‘평등세상 앞당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고 구호를 외치며 고통받는 이들이 행복과 평온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노위, ‘동사섭’ 참된 의미 일깨워”

출범 10년 평가·전망 세미나
발제자들, 그간 활동에 치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에서 특별히 부러운 점은 종단의 가장 중요한 날인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세우고 함께하는 모습은 조계종이기에, 사노위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협의회도 사노위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크리스마스에 성소수자들을 모시고 이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불의한 일을 겪었지만 호소할 곳 하나 없어 괴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싸워온 것이 바로 사노위의 활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동사섭’의 참된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발원하며 2012년 8월 발족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10년 소회로 시작됐다.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한 양 위원장은 “사노위의 주인은 조계종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위한 꾸준한 활동은 사노위가 형식적이 아니라 아픔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활동해 나가는 실천 기구로서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이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찾는 기구가 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 사회, 인권, 빈곤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상근활동 스님 증가 △현장서 진행되는 종교적 방법의 대중화 △실천활동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노위와 연대한 단체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사노위 10년에 대해 빈곤철폐와 노동해방, 평등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손 내미는 곳에 사노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앞으로도 사노위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동료로서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일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 박해·순교 신화 갇혀선 안돼”

불교사회연구소, 8월 22일 세미나
이창익 고려대 교수 등 발제 나서


불교사회연구소가 ‘다종교 현상과 종교공존’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

“종교가 더 이상 세상을 회상하고 세상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의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얼마나 또 더 불안해질까요.”

8월 22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22년도 호국불교 연구 학술대회-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익 고려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순교 개념이 굴절돼 간 양상을 밝힌 발제 ‘종교와 국가의 근접 조우-일제강점기 순교 개념의 굴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 현재를 깊게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종교적 신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순교 등 종교 탄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문제, 근대 세속주의 사회에서 빚어지는 공공성과 신앙의 공존 문제, 종교 전파시 발생하는 문화적 긴장과 화해의 문제,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앙과 전통적 가치 충돌의 문제, 정치적 혼란으로 촉발된 종교인의 망명이 타 지역의 문화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익 고려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은 신자를 유입하기 위해 ‘순교’라는 종교적 가치를 이용했고 신화를 창작하고 재구성하며 종교의 핵심 자원으로 안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를 회상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 현재를 깊게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 종교적 신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한국종교의 순교 개념이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순국 개념처럼 굴절되는 데 기여했던 과거는 분명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청산돼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종교 집단과 조직 공존이 필요하기보다는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자신의 것을 일부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종교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문화사업단, 뉴욕서 전통불교문화 홍보

한미수교 140주년 맞아
불교문화 홍보행사 진행


뉴욕에서 열린 사찰음식 토크쇼를 진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

미국의 중심부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홍보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제5회 한국전통불교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가 더 크다.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뉴욕 그랜드센트럴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에서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관 스님과 지견 스님은 사찰음식 시연과 시식을 통해 한국 사찰음식의 매력을 알렸다.

8월 23일 저녁에는 관광업계 관계자, 정관계 인사, 각국 대사 및 영사, UN대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프리아니 42번가 이벤트홀에서 사찰음식 만찬이 진행됐다.

리셉션에서는 청태천 연꽃차와 사찰부각을 선보였으며 전식에서는 토마토 장아찌를, 본식에서는 여름채소겉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음식을, 후식으로는 흑임자 약과와 천진암 발효차를 제공했다.

이어진 행사들에서는 템플스테이 체험, 사찰음식팝업 레스토랑 등이 호응을 받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된 현재, 우리의 K-팝·K-드라마 같은 미디어 문화가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정신문화인 사찰음식, 불교문화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며 “2010년 사찰음식 행사를 시작으로 뉴욕에서 5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다연기획’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불기 2567(계묘)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시방의 평온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께
‘다연기획’이 힘찬 출발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연기획은’ 불교 전문 종합기획사로서
2022년 6월 폐업한 ‘감로기획’에서
20년~30년간 일해 온 직원들이 다시 만나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연기획’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알려 주는 **불교 카렌다**
사찰의 각종 행사와 의례의식에 필요한 **행사용품**
각종 카다록과 단행본 및 현수막 등 **홍보용품**
사찰과 신행 단체의 **행사 기획 및 대행**
분야에서 일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찰의 행사와 전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사찰의 발전과 불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여름 다연기획 임직원 일동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

30년 만의 교정인불자 '보금자리' 눈길

8월 21일 안양 선우정사에 개소…200여 대중 축원

지도법사로 선타 스님 위촉
정기법회 · 교육 등 진행예정
"교정인 불자들의 새 구심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마땅한 신행공간 없이 구치소 내 공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불자교정인들이 깨어있는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과 법회를 열고 정진하겠습니다."

1994년 창립 이후 불자교정인들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김행규)가 8월 21일 안양 선우정사에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는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 교화에 앞장서 왔지만 정작 교정인들만을 위한 신행공간이 없었다.

교불련이 안양 선우정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의 불심회에서 경비대 소대장으로 불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김행규 회장은 2005년 인근 사찰을 방문하게 된다. 재가자들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주변 스님들의 도움을 요청코자 함이었다.

당시 선우정사는 서울구치소 근처 작은 사찰이었다. 하지만 선타 스님은 흔쾌히 팔을 걷고 나섰다. 교정 포교에도 앞장섰던 선타 스님은 사회복귀과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불심회와 함께 재소자 포교를 진행했다. 선타 스님을 비롯해 의왕 청계사 성행 스님과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 등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서울구치소불심회는 꾸준히 포교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08년 선우정사가 도심으로 이전하게 됐다. 인덕원 학의천변의 보궁빌딩이란 곳이었다. 김행규 회장은 이 보궁빌딩에 교정인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공간을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타 스님에게 전했다. 문경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의 맏상좌로 도심 포교 활성화 원력을 지닌 선타 스님이기에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지도법사 선타 스님(왼쪽 두 번째)과 김행규 연합회장(왼쪽 세 번째),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왼쪽 네 번째) 등이 개소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지도법사로 위촉된 선타 스님은 "저희가 인연을 맺은지 20년이 다되어 간다. 서울구치소를 집처럼 다니며 교정인불자들과 재소자들을 지도해왔는데, 이렇게 전국조직 지도법사로 위촉되어 의미가 깊다"며 "불교는 평화의 종교다. 내면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등불을 켜고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김행규 회장은 "교정인불자들이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일일신우일신, 재소자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지니는 법을 전하여 사회복귀 후에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자"며 "우리도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는 선우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보고 같은 건물의 사무실에서 각종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선우정사에서는 개소식에 앞서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초청 법회와 함께 황금진신사리 친견도 진행됐다.

청년불자와 함께, '상월결사' 은해사서 평화순례

8월 24일 5차 평화방생순례 봉행
역대 최다인원, 1600여 대중동참

동국대 건학위 장학생 50여명 참석
불자대중과 우중행선, 백흥암 참배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평화방생순례에 청년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우중행선을 펼쳤다.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8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진행한 5차 평화방생순례에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1600여 불자들이 모여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뿐만 아니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30여 명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흥암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박수를 받으며 은해사로 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국제선센터, 대덕사, 안국선원, 전등사, 백담사, 보경사, 관촉사 등 전국 사찰에서 참여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와이즈캠퍼스 총장,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날 순례는 은해사 템플스테이 운동장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사회로 입재했다.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대독을 통해 "올 한해 상월결사의 화두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순례에 앞서 은해사 측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장학금 2000만 원, 상월결사에 인도순례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도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엄중한 시기에 자승 스님께서 위기를 느끼고 포교라는 기치를 걸고 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국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만희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함께 순례대중들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순례를 시작했다.

빗방울이 거세지는 가운데에도 각자 우의를 입고 은해사 산내 암자인 백흥암까지 묵묵히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에서는 스님들이 앞장을 서고, 동국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불자들이 뒤를 따랐다. 땀과 빗방울이 섞여 흘러 내렸지만 표정에서는 환희심이 넘쳐났다.

동국대 국어국문학부 2학년 김승리 학생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생활비를 버느라 자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국대에서 불교정신으로 인재불사에 나서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 순례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불자분들의 마음을 읽게 돼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6차 평화방생순례를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손글씨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상 등 12명에 상패 수여
갤러리나무서 8일까지 전시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손글씨로 담아낸 작품들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 9월 8일까지 전시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은 8월 24일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 결과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부문에서 각각 선정된 수상자 12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개막했다.

민추본은 6월 초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글씨(캘리그라피) 작품을 공모한 결과 배정인 · 윤자영 · 최수연 씨가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부문에서 각각 총무원장상인 대상에 선정돼 수상했다. 또 통일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는 남욱환, 문수혁, 김지환 씨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추본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인 부문 총 45점, 청소년 부문 500여 점, 어린이 부문 총 59점 등 총 600여 점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혜 통일부 사회문화정책과장은 "수상작 외에도 출품작이 600여 점이라는 데 놀랐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 모든 작품 속에 평화통일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어린이부문 대상을 차지한 최수현 어린이는 7세 최연소수상자로 눈길을 끌었다. 최수현 어린이는 평화통일이라는 글자에 태극기와 무궁화 등 그림을 함께 담아 독창성과 의미 등 모든 기준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공모전 참여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배정인 대상 수상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 남북이 하나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했고 어린이법회와 종립학교를 비롯해 예상보다 많은 출품작들이 접수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평화통일 의식이 희미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없는 힘이 된다. 종단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하는 민추본 또한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겨 초발심을 잃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8월 25일 열린 영화제 개막식에서 사부대중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2022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성황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며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대학원장 이원덕)이 주관하는 2022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8월 25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영화제 증명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이원욱 정각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조직위원장인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개회사, 각계 치사 및 격려사 및 차승재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됐다. 영화제는 8월 28일 광우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폐막작(길위에서 길을묻다) 상영으로 마무리 됐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가치 트로트로 알릴게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은 “앞으로 생명나눔에 큰 힘이 되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⑧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배아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리틀 주현미’.

트로트 가수 배아현을 수식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히든싱어 시즌 2에 출연한 배아현은 아쉽게도 3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뛰어난 가창력을 눈여겨 본 가수 주현미가 “성인이 되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으면서 ‘리틀 주현미’로 불리게 됐다.

2015년 한 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24시’로 정식 데뷔한 배아현은 나이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원숙한 표현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배 띄워라’ ‘선비 좋아 마세요’ 등을 히트시키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굳혔다.

‘리틀 주현미’에 이어 최근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다.

배아현은 올해 4월 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가수 신성과 함께 홍보대사가 됐다. 위촉식에서 배아현은 “노래 실력을 열심히 갈고닦아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능을 잘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배아현은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이 회주로 주석하는 남양주 불암사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닌 말 그대로 ‘찐불자’다. 불암사 신도인 신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는 대웅전 앞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다.



배아현은 올해 4월 1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리틀 주현미’ 불리며 가수데뷔
불암사 마당서 뛰놀던 ‘찐불자’
팬클럽 자발적 희망등록 눈길
“봉사 등 선한 행보 이어가겠다”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한 팬클럽회원들.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이면 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는 부스를 종종 봐왔어요. 그래서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각종 행사뿐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생명나눔을 언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죠.”

실제 배아현은 팬클럽과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실시간 미팅에서 항상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잊지 않고 알린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일부 팬클럽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팬클럽에 가입해 2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박진혁 씨(44세, 법무사)는 팬클럽 회원 중 가장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박진혁 씨는 “장기기증에 대해 막연함이 있었는데, 응원하는 가수가 홍보대사가 됐으니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마음 맞는 몇몇 팬들과도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봉사활동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아현 가수가 보여주는 선한 마음을 본받아 팬클럽도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팬클럽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후 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배아현은 더욱 바빠졌다. 마침 코로나 여파로 주춤했던 문화행사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최근에는 전국 곳곳 사찰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산사 음악축제 무대에 자주 오르고 있다.

“공연 전 부처님께 삼배하고 노래를 부르면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관객들의 반응도 더 좋은 느낌이에요. 공기 좋은 사찰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죠. 무대를 내려오기 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이후 불연이 더 견고해진 걸까. 6월에는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얼마 전 20대들과 함께하는 직지사 템플스테이에도 동참했다.

배아현은 “좀 더 유명 가수였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나눔 홍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생명나눔에 큰 힘이 되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생명나눔 확산 우리가 책임진다”

생명나눔 알리는 홍보대사들

2001년 배우 장동건 첫 위촉
연예인 · 스포츠스타 등 51명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와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꾸준히 영향력 있는 명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스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생명나눔이 홍보대사 위촉을 본격 추진한 것은 2001년. 첫 홍보대사는 불자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동건 씨가 맡았다. 장동건 씨 홍보대사 위촉은 이른바 ‘장동건 효과’를 거두며 홍보대사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장동건 씨가 각막기증을 서약하자 당시 월 1000건 안팎이었던 장기기증 동참이 이후 2000건을 넘어서며 대폭 증가했다. 매달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했던 장동건 씨가 2004년과 2006에 후원금 1000~5000만 원을 기부하자 소식을 접한 팬들도 동참,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이를 생명나눔에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다.

눈에 띄는 홍보 성과를 체감한 생명나눔은 이후 탤런트 전광렬 씨, 야구선수 홍성흔 씨, 방송인 김병조 씨, 국악인 송소희 씨 등 홍보대사 위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하면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 씨를 빼놓을 수 없다. 독실한 불자인 김흥국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각종 행사에 성심성의껏 임한다.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동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속사포 래퍼’ 아웃사이더도 활발한 활동으로 생명나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아웃사이더는 2012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뇌사시 장기기증도 약속해 화제를 모았다. 아웃사이더는 생명나눔이 매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개최하는 한다솜 음악회에 출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탤런트 김혜옥 · 김용림 씨도 장기기증 거리캠페인 등 주요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를 홍보대사로 추천하기도 하며 연예계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장기기증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보대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생명나눔 임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크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에서 목표치 100%를 달성하는 등 생명나눔은 괄목할 성장을 거뒀다. 올해도 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 모집 목표 2300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트로트 가수 배아현 씨와 신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총 51명. 스님을 비롯해 가수, 스포츠 스타, 방송인, 스님 등 홍보대사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미지 제고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홍보대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 음악 | 김흥국, 해피체어, 박상민, 한혜진, 송소희, 주병선, 타히티, 아웃사이더, 김정연, 팝핀현준, 박애리, 웅산, 진보라, 정수라, 한영, 박일남, 양하영, 장미화, 써니힐, 김수빈, 권미희, 배아현, 신성

▶ 방송 · 영화 | 전광렬, 장동건, 이세은, 김병조, 김혜옥, 송선미, 문소리, 설수현, 이익선, 양상문, 남일우, 김용림, 이창재, 엄용수, 정준호, 김하영, 슈퍼탤런트

▶ 스포츠 | 홍성흔, 이은경, 윤석민, 이광은

▶ 종교 · 의학 | 지민 스님, 마가 스님, 정목 스님, 월호 스님, 보현 스님, 이윤수, 유종균

(2022년 8월 현재 총 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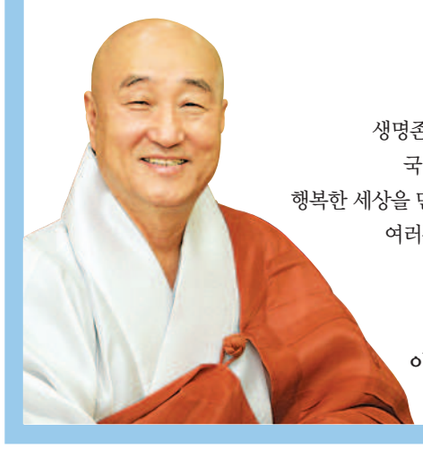


참여대상
청소년 및 참가를 원하는 국민 모두

프로그램
09:00~10:30 접수 / 부스체험 / 개회식 / 걷기 선포식
10:30~12:00 걷기명상
12:00~13:00 문화공연 및 경품추첨
(노트북, 로봇청소기, 애플워치 등)

문의 02-720-7720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황일면 합장

제13회
생명나눔 걷기명상

일시 : 2022. 9. 3(토) 09:00-13:00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추서

국가보훈처 8월 9일 공문 통해 대통령 표창상 포상키로

친일승 강대련 '명고축출'이 계기
조선불교유신회 결성 등 독립운동
전시관 · 음악회 등 추모 사업 기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지키고 항일운동에 앞장선 동고당 문성 대종사(東皐堂 汶星大宗師, 1897~1997)<사진>가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국가보훈처는 8월 9일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높이 세우신 박문성 선생의 독립운동 위업을 기리어 대통령 표창에 포상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문성 대종사의 상좌인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은 8월 24일 해인정사 문화회관에서 '동고당 문성대종사 독립유공자 추서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문성 대종사의 일대기와 활동을 알렸다.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독립유공자 추서는 친일 승려였던 강대련을 명고축출(鳴鼓逐出)한 사건을 계기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명고축출 외에도 일생을 통해 불교정화와 독립운동을 펼친 숭고한 삶을 전국 곳곳 주요사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인사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일본경찰 두 명을 격퇴한 후 수도암으로 피신한 것은 스님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일화이다"고 말했다.

명고축출(鳴鼓逐出)은 스님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승권을 뺏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인 산문출송(山門黜送)을 의미한다. 명고축출은 1922년 3월 26일 33본산 주지 연합의 대표였던 친일 승려 강대련의 등에 북을 달고 종로 거리를 행진한 사건이다. 강대련은 조선총독 사이또에게 '조선불교기관확장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스님들과 일본의 스님 혹은 일본 여자와 결혼시켜 교화를 이루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성 스님은 강대련에게 "조선불교를 망치려는 불교의 악마"라며 지탄했고, 명고축출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 받았다. 이후 문성 스님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와세다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된다.

문성 스님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통도사 조실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육혈포삼발승어독서천권(六穴包三發 勝於讀書千卷)'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후라고 알려져 있다.

문성 스님은 한용운 스님의 강연 이후 '조선불교유신회'를 창립하며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회는 젊은 스님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문성 스님과 한용운, 김법광, 김상호 4명의 스님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다. 문성 스님은 조선불교유신회의 발기인으로 독립운동과 조선불교의 정통성 및 청정승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청정한 한국불교의 전통성 회복을 위해 동산 스님, 청담 스님과 함께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으며, 1962년 조계종이 성립될 당시 초대감찰 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3번에 걸쳐 감찰원장을 지냈다.

수진 스님은 "문성 노사의 애국, 애종심은 청빈한 삶과 곡직한 원칙주의 그리고 돈과 권력에 걸림이 없었던 삶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장기적으로는 추모탑과 전시관을 세우고 가을에는 추모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는 1897년 2월 6일 경북 영천군 북안면에서 출생했다. 1907년 10세가 되던 해 부친과 통도사를 참배하던 중 저녁 예불 소리를 듣고 무상함을 느껴 다음 해 출가했다. 1911년 4월 15일 경남 고성군 옥천사 서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20년 조선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다음해 해인사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을 격퇴하고 김천 수도암으로 피신했다. 이후 교원 및 강사로 활동하며 인재양성에 앞장섰고 금강산 마하연, 함경도 보현사, 통도사, 해인사, 옥천사 등에서 안거정진했다. 옥천사에서 안거정진 하던 중 1935년 4월 29일 깨달음을 얻고 '임발청산장향기(臨發靑山藏香氣) 해저노룡함진주(海底老龍含眞珠) 향기진주수미로(香氣眞珠雖未露) 변복삼천상방광(邊覆三千常放光)'이라는 오도송을 읊었다. 1947년 고성 옥천사 백련암에서 6년 결사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1년 옥천사 주지였을 당시 국내 최초 종군 포교사로 철원의 전쟁터에서 활약했다. 불교정화 활동 이후 옥천사 초대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마하사 주지, 통합종단 초대 감찰원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감찰원장을 세 번 더 역임했다. 1974년 감찰원장 사임 후 1978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원로위원으로 추대, 199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명예원로위원으로 추대됐다. 1997년 7월 10일 세수 100세 법납 86세로 '석가강생작야몽(釋迦降生昨夜夢) 달마도강몽견공(達磨渡江夢見空)약인문아진소식(若人問我眞消息)금용은사살인중(金龍銀蛇殺人中)'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화엄종주 무비 대종사, 전강전등 건당식

정행 등 9명 제자에게 강맥 전해
성불 당부 법문에 포교 원력 다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8월 20일 대적광전 법계탑 마당 특설법단에서 화엄종주 무비 대종사의 전강전등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건당식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의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해 전등법사 무비 대종사의 등단, 헌다, 헌화, 청법가, 법어 전등법계 전수 및 교시, 죽비 경책 순으로 진행됐다.

건당법사 무비 대종사가 등단하자 제자들은 꽃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법가로 법을 청하자 무비 스님은 "부처님의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나투시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무풍기랑(無風起浪)'이라고 했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다"며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고 목을 메이며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며 숱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한 생을 부딪히면 전부 무풍기랑이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이는 이 소식을 잘 참구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날 건당식에서 무비 대종사는 금산사 주지 정행 스님, 현성정사 주지 마가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해인사 교무국장 해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부회장 경조 스님, 전 금륜사 주지 도원 스님, 보광사 주지 송준 스님, 수하사 주지 수하 스님 등 9명의 스님에게 법호를 내리고, 전등법계 보와 발우, 〈직지심체요절〉을 강설하고 번역한 〈직지강설〉, '화엄(華嚴)'을 적은 휘호, 책 〈왜 리더인가〉를 전하며 정진하고 포교할 것을 당부했다.

건당 제자들은 고불문을 통해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것을 다짐했다. 건당 제자들을 대표한 보일 스님은 고불문에서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연을 자량삼아,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며 "바다 같이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받아 지녀 광도중생(廣度衆生)을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비 대강백은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화엄경〉 80권 전체를 완역하고 강설해 세인들로부터 경이로움과 찬탄을 받고 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교학 연찬에 진력하시며, 위법망구(違法忘軀)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시어 후학들에게 경책이 되어 주셨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건당 제자들이 무비 대종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자 무비 스님은 바로 승가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다. 건당식은 '법의 기치(法幢)을 세운다'는 뜻으로, 스승이 불법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불법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비 대종사는 1958년에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그 해 여름 하안거부터 제방선원에서 20여 년 수행정진했으며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250여 명의 스님과 250여 명의 재가 신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해인사=하성미 기자

해동용궁사 주제 사진공모전 시상식



대상-강동구 作 '자비의 빛'.

대한불교조계종 해동용궁사(주지 덕림)가 8월 23일 부산시 연제구 소재 국제문화센터 중강당에서 '제21회 국제신문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이번 사진공모전은 해동용궁사를 주제 및 소재로 한 작품과 자유창작작품을 공모했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40일간 접수를 받았다. 총 1728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32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강동구의 '자비의 빛', 금상에는 박창현의 '고요 속의 용궁사', 박호광 '꿈의 정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안윤태 국제신문 사진동우회 회장을 비롯해 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붓다볼로 만나는 명상치유 프로그램

9월 20일 개강 12주, 40명 모집



홍법사 (사)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가 소리명상 프로그램 '붓다볼(Buddha Bowl)로 찾아가는 붓다의 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붓다볼은 소리명상 법구(法具)로 알려진 싱잉볼을 말하며, 프로그램은 고요한 마음으로 붓다볼의 소리를 비춰보는 관조와 효율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9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주 동안 화요반, 수요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화요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이며 수요반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각 20명으로, 총 40명이며 수업료는 10만 원이다. 장소는 홍법사 배움채 3층 명상실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깨달음의 열쇠!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깨달음의 진수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해수관음상 봉안

8월 20일 제막법회…1천명 참석

높이 4.5m, 폭 1.3m 거대한 관음상
2년여 간 불사 진행, 정진 발원 계기
혜수 스님 "해수관음 일체 이롭게해"

통영=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8월 20일 해수관음상 제막법회를 거행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모인 사부대중들이 해수관음상을 제막하고 있는 모습.

높이 4.5m, 넓이 1.8m, 폭 1.3m 규모의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경남 통영 앞바다를 마주한 발암산 중턱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위용을 드러냈다.

〈화엄경〉에 따르면 중생이 온갖 고뇌에 시달릴 때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명호하면 그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전국사찰의 해수관음 성지에는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염호하는 기도객들로 넘쳐난다. 해수관음상이 바닷가에 많이 세워진 까닭은 예로부터 관음보살이 인도 남동쪽 해안에 있는 '포탈라카' 산 굴속에 산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서 티베트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찰들은 바닷가 산에 수많은 관음신앙 성지를 만들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은 8월 20일 해수관음상 제막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과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도법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봉안법회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통영이 바다와 살아가는 도시란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해수관음을 모시고 나니 그 사실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다. 바다의 땅 통영을 살피는 혜수관음의 해량이 일체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바다와 공체로 공생하는 통영, 공식하고 공용하고 공심으로 살아감으로서 해수관음의 빛으로 여러 중생들이 고통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소중하고 감격스런 불사를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이어 혜수 스님은 "우리 선원은 도량에 불사를 하면 신도님들께서 마음 불사도 함께 이루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선원에서 이루어지는 불사는 각 도량서 이루어지지만, 대행 큰스님께서 전체를 품어 펼쳐 주시고 각 도량이 중심되어 선원 모든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이루어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2012년 저의 큰 의지처셨던 대행 큰스님이 입적하시면서, 큰스님도 안계신데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이 불사를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막막했다. 하지만 큰스님이 안계시더라도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며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아니었다면 통영지원은 존재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대행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인공관법' 인 '오직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는 그 믿음 하나가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어 내게 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명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종무실장은 신도대표 발원문 낭독을 통해 "우리 도량을 굽어 살피며 미소를 띠고 계신 해수관음보살님 앞에서 통영지원 신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발원한다"며 "해수관음상 봉안을 통해 모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밝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이 도량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정진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증정식도 진행됐다. 이번 해수관음상 조성에 공로가 큰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이사에게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또한 주요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이자 연화사 주지인 도법 스님은 "오늘 통영지원 해수관음상 낙성으로 보리암, 보문사, 낙산사에 이어 이곳 통영지원이 4대 해수관음 성지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여법하게 잘 모셨다"며 "이렇게 이 도량에 해수관음상을 모셔 통영지역 불교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김호석 통영시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엄숙한 법회 속에서 세워지는 해수관음상 봉안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통영을 극락정토로 이끌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리하여 이곳 통영지원이 중생들에게 맑고 깨끗한 지혜의 샘이 되어 명실상부한 한국최고의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 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봉안법회는 해수관음상 제막과 헌화,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대행선사 생전 영상법문 시청, 통영 ·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조성된 통영지원 해수관음상은 연화좌대 높이가 1.8m, 너비는 3m로 하대석은 팔각과 중대석은 복련을 조각하고 상대석에는 양련을 새겼다. 해수관음상을 둘러싼 병풍석은 길이 19.3m, 높이 2.9m 규모로, 중대석에는 '나를 완성시키는 길' 이라는 대행선사의 법어 10폭을 새겼다. 특히 이번 해수관음상 봉안으로 통영지원은 지난 2004년 대행선사의 불사 발원 이후 2018년 대웅전 낙성, 2021년 도량탑 제막 등에 이어 18년 대작불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날 봉안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해수관음은 중생의 아픈 마음을 인자한 미소로 어루만지며,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꼿꼿하게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8월 22일 15명 학생 주축돼
대불련 등 불자참석해 축원



8월 22일 창립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 불교학생회 창립법회가 8월 22일 진주 미륵암에서 봉행됐다. 지역불교계 및 경상대교수불자회, 대불련 동문회의 후원 속에 15명의 학생이 부처님께 귀의했다.

창립법회는 개회선언, 헌향(배설화회장), 헌화(김옥란 동문회부회장),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발원문(유솜이), 삼대강령제창(오화선 동문회부산지회장), 경과보고 및 인사(김용진 불교학생회지도교수), 연혁소개, 내빈소개, 스님축사, 중앙회장 인사(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동문회장 인사 및 축사(문성국 동문지부장), 회장인사(배설화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격려사(지도법사 담산 스님), 꽃다발 증정, 장학금전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뺏지 수여, 회원소개 및 동문회 소개, 공지사항 및 기념품 증정, 사홍서원, 대불련가,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지도법사 담산 스님, 사천 달마사 해일 스님, 남해 관음선원 일진 스님, 진주 기원정사 성각 스님, 창원 안국사 성오 스님, 고성 옥천사 청련암 원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순천대 불교학생회 이종수 지도 교수, 경상국립대 교수불자 김용진 교수(지도교수) 등 회원 및 배설화 불교학생회 동아리회장, 유솜이 부회장, 강민희 총무 등 15명의 창립학생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1967년 진주경상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되었으나 그동안 중단되어 아쉬웠다. 오늘 배설화 회장과 15명의 경상국립대 학생들의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니 기쁘다"며 "부처님 도량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생활하자"고 서원했다.

배설화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오랜 기간 공백이 있었던 경상국립대학교의 불교학생회 동아리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대불련 동문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 시키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용진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교수불자회장)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담아 진리와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일하길 바란다"며 "화합과 포교로 재창립하는 불교학생회가 희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모델과 방향을 모색하는 구심점이 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의왕 청계사 2022년 문화재활용사업 성료

이야기인쇄소 '경판학교' 8월 20일 수료식 거행



청계사 문화재활용사업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문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8월 20일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의왕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성행 스님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12명에게 "목판 인쇄와 목판화 전통은 소중한 인쇄 문화로 천년고찰 청계사서 인쇄 전통기술을 배운 것은 자랑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청계사를 활용한 이야기 목판인쇄소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의왕시, 청계사,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주관하여 청계사 및 의왕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무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천자문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 등 경판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106호 정찬민 각자장이 지도하고 있으며 의왕지역 주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노덕현 기자

전주교도소 불교반, 수용자에 선물 전달



전주 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아이스크림이 전달됐다. 전주 교도소 불교반(위원장 현진, 천지사 주지)는 8월 19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1,300명분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진성 스님은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려 심신이 지쳐 가는 즈음에 수용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불교반 위원장 현진 스님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사회적 인사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교정봉사에 힘을 얻고 있다"며 "비록 수용자들이 죄의 댓가를 치르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자아반성을 이루는데 나눔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스크림 나눔은 마이산 탑사 신도회 윤복길 회장,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 이재현 봉사단장, 교정봉사단 박성균 단장, 탑밴드 봉사단 천순희 단장,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김경은 단장, 소녀원 어머니회 지원단 정해자 단장, 소녀원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황동현 대표, 소년원 어머니회 김도은 위원장, 김동우, 변상경, 박교상, 오다애 심 봉사자들의 후원과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차상위 어린이 돕기



또래 친구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가 전달됐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8월 19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관내 차상위계층 저성장 어린이들에게 홍삼 영양제 100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월인 스님(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중현 스님,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오대영 빛고을나눔나무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중현 스님은 소감을 통해 "가장 성장이 왕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양은 중요하다. 특히 차상위계층중 성장이 더딘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나중에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갖는 심리적인 피해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이경 청장도 "관내에 힘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한 홍삼 영양제는 고른 영양 섭취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부터 매년 2개 구청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의 어린이 영양제를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순천대와 업무협약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와 순천대(총장 고영진)가 8월 22일 선암사에서 '지역사회, 임업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선암사 시각 스님, 선암사 총무 원일 스님, 문사 스님을 비롯해 순천대 고영진 총장, 기획처장 정용화, 생명대학장 신동원, 박물관장 이종수, 부속학술림장 조계중 교수 등이 참여해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 공동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인적, 학술교류 △ 수목병충해 진단 및 방제 기술 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변화 및 생태조사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암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로, 인종과 국가, 종교나 이념을 넘어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며 "선암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도량과 자연환경의 원형을 보존하여 만대에 계승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고영진 총장은 "순천의 대표적 천년고찰인 선암사의 발전이 곧 순천의 발전이며, 순천대학교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라고 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中, 가뭄으로 다시금 세상 나툰 마애불

양쯔강, 150년만의 최저수위
암초 새겨진 불상 출현 화제
600년 전 지장보살 벽감도
조난자 위령 위해 조성 추정

박영빈 객원기자

계속되는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이 중국대륙을 덮쳤다. 중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양쯔강도 150년 만에 최저수위를 기록하면서 강물 속에 잠겨있던 마애불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월 18일 홍콩의 '이코노믹 타임즈'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마애불의 소식을 상세보도했다.

마애불은 양쯔강 충칭구간 바난(巴南)지구에 있는 암초인 포예량도(佛爺梁島)에서 발견됐다. 암초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서쪽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은 중앙의 지장보살을 모신 벽감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벽감에 각각 도교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신상이 조각된 삼존불이다. 세 불상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낮아진 수위로 다시금 세상에 나타난 마애삼존불. 사진출처=신화통신

현지 소식통들은 "포예량도 암초는 1년 내내 강물에 잠겨 있으며 간혹 머리 부분만 수면에 돌출되곤 했다. 오래전부터 현지에선 바위에 부처님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포예량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현재 충칭에서만 51개의 강이 흐르지 않고, 24개의 저수지가 고갈된 심각한 가뭄"이라며 불상이 완전히 노출된 연유를 전했다.

불상을 직접 조사한 충칭 문화유적 고고학연구소의 니우잉빈 부연구원은 "중앙 벽감은 높이 1.4m, 너비 약 1m로 안에 높이 1m 가량의 지장보살상이 부조로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연화좌 위에 결과부좌로 앉았으며 선정인을 한 모습이다. 좌우의 작은 벽감에는 의자에 앉은 형태의 신상이 각각 봉안되어 있는데 관을 쓰고 소매가 긴 옷을 입은 모습이다. 중앙의 불상보다 조각이 조악하며, 오른쪽 벽감의 경우 특히 청대 조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또 니우잉빈은 "여러 점에서 보았을 때 중앙의 지장보살은 600여 년 전 명대의 지장보살이고, 좌우의 신상은 청대에 추가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좌우 신상은 당시 도교나 민간신앙이 결합된 도상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마애삼존의 보고를 받은 전문가들은 "이 일대에는 암초와 소용돌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난파선이 자주 발생했을 것이다.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조성한 것은 아마도 사고를 당한 선박과 조난자들을 위령하고, 오가는 선박의 안전과 항로를 안내하기 위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美, 캄보디아에 약탈 유물 반환 결정

내전 시 광범위 약탈물 30점
10세기 전 제작 청동 불상 등

지난 8월 14일 해외 주요 언론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미국의 캄보디아 약탈 유물 반환 결정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1000년 전 제작한 청동불상, 힌두교 석상을 포함한 약탈 유물 30점을 캄보디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코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고고학 유적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내전으로 광범위한 약탈을 겪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후 국제시장에서 판매된 약탈 유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맨해튼 연방검찰청장 데미안 윌리엄스는 "반환이 결정된 대부분의 문화재는 태국 방콕에서 활동하는 장물아비 더글러스 래치포드가 서방 수집가들에게 판매한 것"이라면서 "더글러스는 해당 문화재가 약탈 및 밀수품임을 감추기 위해 위조문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장물아비 더글러스 래치포드는 태국과 영국 이중국적자로 2019년 금융사기 및 밀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2020년 태국에서 사망했다.


캄보디아 유물 반환 발표에서 미 검찰이 압수한 캄보디아 유물 30점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미 검찰이 더글라스를 대상으로 민사 몰수 청구를 제기하자 그와 거래한 미국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소유권을 포기한 유물 중에는 1000년 전 제작한 청동 불상과 힌두교 전쟁과 승리의 신 스칸다가 공작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10세기 사암(砂巖) 조각상 등이 있었다. 관계자는 "이 조각상들과 유물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매우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반환 예정인 약탈 문화재는 청동기시대부터 12세기까지 사암과 청동 조각품, 공예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굴꾼에 의해 캄보디아로부터 불법 반출되어 허위 진술 및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을 통과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뉴욕의 국토 안보 조사 특별 요원 리키 파텔은 "이 유물들이 비범한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우리가 반환하는 유물들은 캄보디아에서 약탈한 것이다. 오늘 발표한 유물뿐만 아니라 각국의 신성한 유물들은 무형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팔려나간다"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미국 대사 키오 체아는 "본국으로 반환되는 이 유물들은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반환은 캄보디아의 문화에 담긴 혼을 캄보디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반환을 결정한 미국 정부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물 반환을 위해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나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유물 약탈과 본국 반환 문제를 꼬집으며 "꾸준히 발생하는 각국의 귀중한 예술작품과 유물의 약탈을 막기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며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검찰은 2014년 약탈당한 10세기 사암 조각품인 두료다나(힌두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요 등장인물)를 경매 회사 소더비스와 합의해 캄보디아로 반환했으며 지난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는 약탈 유물 27점을 캄보디아로 반환했다. 이외에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세기 석상과 13세기 목조 불상을 네팔에 반환하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라다크 여행 연장

라다크 주민 간원과 이상기후 영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원거리 방문으로 라다크를 선택한 달라이라마가 오는 9월까지 라다크에 머물 수 있다는 징후를 내비쳤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달라이라마가 여러 이유로 예정했던 기간보다 오래 라다크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15일, 팬데믹 사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도 북부 라다크를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현지 불자와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라다크 불교협회의 툽텐 체왕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고령의 연세와 코로나 확산의 위험에 따라 최대한 외부일정을 자제해 주시길 이미 요청했고, 달라이라마께서 라다크에서 편안히 머무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라다크 주민들은 종교와 성별, 나이를 떠나 달라이라마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러 몰려든 인파와 이들을 위해 천천히 이동한 달라이라마 일행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거의 90분에 걸쳐 숙소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현재 라다크에 머물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지난 7월 28일 대중법문을 가졌으며 6만 1000명의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들었다. 이후 현지의 도서관과 학교를 방문하고, 8월 12일부터 나흘간 오지인 잔스카르의 학생들과 대담을 가지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스카르와 파둠 등의 사원들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는 8월 말에 다시 본래의 주석처인 다람살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라다크 주민들의 간원과 폭우가 이어지는 다람살라의 이상기후로 한동안 라다크에 머무는 것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현재 달라이라마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채, 휴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다크 방문 중 대중연설에서 "라다크와 잔스카르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난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달라미라마는 펜데믹 이전까지는 매년 한차례 이상 라다크를 방문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라다크 방문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있는 잔스카르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독립일 기념 종교 포럼 개최

다양한 불교종파 불자 참여
팔리어 예불 · 축원도 이어져

지난 8월 17일 말레이시아 언론 '더 선 데일리'는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의 종교 포럼 개최 소식을 전했다.

말레이시아불교사원(BMV)은 말레이시아의 제 65회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조화로운 삶을 위한 자비심'을 주제로 8월 20일 종교 포럼을 개최했다.

종교 포럼에는 하윈더 싱 박사, 자이드 카마루딘 박사, 시발리 시라 명예교수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이 참석했다.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밀교 등 모든 종파 불자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의 명예 비서 '틸락 레슬리 자야와르데나'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예불, 축원, 추모 법회, 안과 검진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면서 "포럼에 동참한 불자와 국가의 축복을 위한 특별한 팔리어 예불과 축원이 이번 포럼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종교 포럼을 알리는 말레이시아 불교 종정 스리 담마라타나 스님. 사진출처=더 선 데일리

사원의 특별한 축원은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말레이시아 국가와 국민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평한 방식으로 통치하길 바라는 내용과 왕을 비롯한 각국의 통치자가 보호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락 비서는 "법회 축원문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무 총리,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지혜와 자비, 이해로 국가와 국민을 관리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 입적 고승들을 위한 추모 법회도 열렸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항공좌석 관계로 9월 20일 마감입니다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 팀 달라이라마 법문 8일(11월 22일 출발 -29일 도착)
(동참금 2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11월 22일 인천-델리-암리차르 / 23일 암리차르-황금사원-다람살라 / 24일 다람살라 네충사원,정부청사, 박물관,링린포체 친견예정 / 25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B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남인도 순례 11일(11월 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세계 최고의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불교 최고의 아름다운 불탑인 산치대탑 등 순례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 15일(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인도 네팔 등 24년 성지순례 노하우 한권에

붓다의 향훈을따라서

글/사진 대연 스님
해조음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불교성지순례를 위한 길라잡이 〈붓다의 향훈(香薰)을 따라서〉가 출간됐다. 1998년 첫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후 20여 회 이상 순례를 이끈 저자 대연스님은 성지순례 전문가로 통한다. 사진은 스리랑카 성지에서 활짝 웃고 있는 대연 스님.

부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첫걸음은 곧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일이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불교성지순례를 위한 길라잡이 〈붓다의 향훈(香薰)을 따라서〉가 출간됐다.

1998년 첫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후 20여 회 이상 순례를 이끈 저자 대연스님은 성지순례 전문가로 통한다. 대연 스님은 책 머리에서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일은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경전 배경을 알고 체험하는 일이며, 경전의 뜻을 더욱더 잘 새겨서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이 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책은 부처님 8대 성지를 비롯해 부처님의 발자취와 불교대학, 석굴 대탑과 남인도, 동인도, 네팔 카트만두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게다가 지역의 전체적인 개요와 역사 및 유적은 물론 가는 길과 먹고 묵을 곳, 관련 경전 내용까지 친절하게 가이드하고 있어 이 책 한 권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순례가 가능하다.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과 지도, 부록으로 부처님 일대기와 인도의 각종 종교 관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는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책에 나와 있는 불교용어, 경전상의 인물 이름과 지명 등은 가능한 한 빨리어를 기본으로 사용했다. 빨리어 발음의 한글 표기법이 낯설겠지만 외국인 스님들이나 불자들과 대화할 경우, 빨리어를 이해하면 훨씬 대화가 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성지와 유적지,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 '입장료 있음' 이라는 안내만 해 놓은 것이다. 이들 장소의 입장료와 출입 방법이 자주 바뀌어서 정보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다. 또한 여느 가이드북에 필수로 들어가는 숙박시설과 맛집 식당 등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싣지 않았다. 이들이 많은 밀집 지역만 언급한 정도이다. 요즘은 인터넷과 호텔 예약 사이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몇 년마다 개정판이 나오는 인쇄매체의 한계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대연 스님과의 5문 5답

△1998년부터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이드북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지 순례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기원정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드는 느낌이 언젠가 여기서 좀 오래 수행하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기회가 닿아서 2001년서 2002년까지 기원정사 근처의 절에 살면서 공양시간 외에는 기원정사 나무 밑에 앉아 수행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순례객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 사람이 가이드 하는 것만 듣고 가지 스님들의 자세한 설명도 없고, 내용도 변변치 않아서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처님 성지에 관해 한번 제대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 책 한 권만 들고 오면 누구의 설명을 따로 들을 필요 없이 훤히 알 수 있게 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이 책을 출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이 책은 8대 성지를 직접 답사하시면서 자료 수집도 하시고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걸 수록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네요.

=예 가이드북 맞습니다. 스님들이 그동안 성지를 순례하고 쓴 여행기들은 나온 것을 많이 봤는데, 가이드북 쓴 스님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가이드북 형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성을 했죠.

20회 이상 다니면서 올바른 성지 순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관련 책들을 봤어요. 또한 인도의 거의 모든 성지마다 스리랑카 절이 하나씩 있는데, 스리랑카 절의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이야기 거리와 자료들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와서 그것들을 많이 참고했죠. 특히 스리랑카 스님들은 주변 성지에 관한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모아 놓습니다. 성지가 갖는 불교적 의미는 물론 부처님일대기 부터 경전 속에 나오는 관련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취재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여 회 불교 성지순례 이끈 대연 스님
인도 네팔 지역 성지순례 가이드북 펴내
현지 자료 토대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이외에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기획한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순례에 지도법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순례단을 어떻게 이끄실 계획인가요?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가르치는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나 복을 주는 기복적인 대상으로 많이 여긴게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부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최상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 완전한 행복을 증득하는 데 최상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신화적인 부처님이 아닌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부분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싶은 거죠. 제가 굳이 나이 들어서 지금 순례 가이드로 나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성지로 데려가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여기서는 어떤 경을 설하셨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직접 현장에 가서 말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순례객들도 성지로 가기 전에 최소한 부처님 일대기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향훈이 아직 남아있는 8대 성지만 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화적 환상이 깨어지고 부처님에 대한 예경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연 스님만이 갖고 계신 성지순례 가이드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살짝 공개해 주시지요?

=각 성지마다 관련된 경전이 있습니다. 최초의 설법지인 녹야원은 〈초전법륜경〉, 부처님 성도처인 부다가야는 〈화엄경〉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함께 조금이라도 읽으며 최소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앉아서 부처님이 사셨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잠시 명상도 좀 하는 시간을 꼭 같죠. 그래서 제가 안내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은 다른 여행사 것보다 보통 2~3일 정도가 더 길어요. 성지에 대한 개론적 설명 외에도 이곳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새벽이든 해지고 난 다음이든 잠시라도 부처님처럼 앉아서 수행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하는 수행체험들도 제가 만들어 넣죠. 인도 순례의 제 24년 노하우를 다 담았습니다.수많은 성지 순례 팀들을 현지서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진 찍고 돌아서기 바빠요. 자주 올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안내를 한다면 부처님이 다니셨던 길을 같이 잠시라도 함께 걸어보고 설법하셨던 자리에 앉아서 잠시라도 부처님 설법을 직접 듣는 것처럼 경을 읽고 느껴도 보면서 환희심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지순례를 이끌어야 겠다고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불상 연구를 오래했기 때문에 당시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어떻게 담았는지까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리가 굳이 외국까지 나와서 야외 수업까지 들어야 하냐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들으라고 합니다. 다녀 오시고 나면 왜 제가 강의에 고집했는지를 대부분 느끼시고 감사해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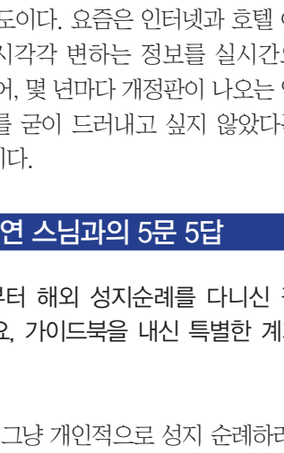
△이 책은 언제부터 집필하셨으며, 독자들한테 어떻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지요?

=자료 수집은 2002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국에 안 살기도 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겠냐는 생각이 들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9년에야 책을 냈지요. 불교 성지순례 가이드북 형식으로 쓰고 보니까 정보가 틀린 데도 많고 부정확한 설명도 있고 해서 언제 진짜 날 잡아서 다시 고쳐야 되겠다 싶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2년전부터 다시 이제 기회가 닿아서 재개정 한 겁니다. 성지를 가시기 전에 대충이라도 훑어보고 가시면, 성지순례를 두 번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순례를 가시더라도 도슨트 같이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대연 스님은?

'定慧堂 一悟 大禪師' 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해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불교 국가의 불교수행센터와 사찰에서 수행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체코 등 현지 사찰서 40여 차례 영어 법문을 했다. 1998년 첫 인도 네팔 불교성지순례 이후, 2002년에는 1년간 기원정사 유적지에서 수행했다. 2008년~2013년 대구BBS '세계 불교성지순례' 외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2009~2017년 '대구일보' 종교인 칼럼, 대구 '매일신문' 칼럼, 월간 '선으로 가는 길' 불교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등을 연재했다.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해인사 해인총림 승가대학 외래교수와 2012년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선원(백담사) 외래강사를 역임했다. 2013년~2014년 체코 Cesky Budejovice 지역 수행프로그램도 지도했다. 저서로는 〈인도에 갈 때는 숟가락을 가져가세요〉(2009),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2010), 번역서로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현재 경북 영천 인오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인오선원 카페 : http://cafe.daum.net/iobmc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영남북부 불교 중심 고운사 성보 한자리에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8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고운사 본·말사 성보 231점 선보여
환지본처 '아미타불회도' 최초 공개
고운사 성보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
영남 북부 불교문화 살펴보는 자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근 고운사로 환지본처한 성보 '고운사 아미타불회도'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2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27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발간사에서 "고운사의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적은 흔치 않았다"면서 "이번 특별전으로 고운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성보가 많은 이들에게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고운사가 보존해온 국가지정문화재급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와 부석사를 비롯한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로, 고운사에 모셔진 조선전기의 석가불좌상, 1670년에 조성된 명부전의 명부존상, 1695년에 봉안된 극락전 아미타불좌상, 최초로 공개되는 1701년 작 '아미타불회도' 등 보물 11건을 비롯해 고운사 본말사의 성보 97건 231점을 선보인다.

고운사는 조선 왕실의 원당으로,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고 어첩(御帖)을 봉안하기 위한 건축물인 연수전이 남아있다. 연수전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수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1744)'과 연수전의 건립과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고운사 소장 기록 자료들이 공개된다.

또한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그리고 영남 북부지역의 조선 후기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불교회화인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보물)'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각 1개월씩 교체 전시한다.

△1부 '고운사의 역사와 성보'에서는 고운사의 지나온 역사와 간직해온 성보들을 소개한다. 고운사는 사찰을 관통하는 계곡이 여러 가지 전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681년 의상대사가 사찰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법등을 이어가며 현재의 가람을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고운사의 석조불좌상과 삼층석탑은 사찰의 창건 시기와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1670년 명부전(시왕전) 건립, 1695년 극락전 아미타불좌상, 1701년 아미타불회도 등 17세기에 조성된 성보들은 고운사를 대표하는 성보라고 할 수 있다. 1835년에는 큰 화재로 인해 여러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이를 중수하기 위한 스님들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16교구 본사로 영남 북부지역의 사찰을 이끌고 있다.


2020년 고운사로 환지본처한 고운사 아미타불회도.

△2부 '고운사의 고승'에서는 '광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조선 1692, 안동 광흥사, 경북 유형문화재)' 등과 함께 고운사를 대표하는 고승들을 소개한다. 고운사는 여러 스님들이 주석하며 오랜 시간 법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창건주인 의상대사를 비롯한 스님들의 기록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에서는 고운사의 사격이 확립되는 17세기 이후의 스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영 신경 스님은 고운사의 불사를 주관하며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존상을 봉안했으며, 주변 지역 사찰까지 다양한 불사를 주관했다. 함흥 치능 스님은 19세기 고운사를 대표하는 강백이자 문장가로 스님께 배움을 청하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 수월 영민 스님은 수행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생전에 몸에서 사리가 나온 이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3부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에서는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고려 1199년경, 보물)'과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고려 12세기, 보물)' 등과 함께 이 지역 사찰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업적들을 소개한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북부 지역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불교문화의 정수가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주목된다. 봉정사와 보광사의 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성보이다. 불교 교학의 기반이 되는 경전의 판각과 인출 역시 이 지역에서 크게 성행했다. 국내 최고(最古)의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 대장전(大藏殿)으로 기능하며 대장경을 봉안했던 사실은 불교 인쇄문화가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꽃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석사의 〈대방광불화엄경〉 경판은 고려시대 여러 경전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광흥사와 봉정사의 〈월인석보〉와 같은 한글 경전들은 창제 초기 한글의 대중화에 이 지역 사찰이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 영남 북부의 불교회화는 다양한 스님들의 활동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18~19세기 사불산화파로 대표되는 퇴운 신겸 스님과 하은 응상 스님의 화업이 돋보인다.

△4부 '연수전, 왕실의 장수를 축원하다'에서는 '기사경회첩(조선 1744,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현재 왕실의 어첩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건립 과정과 운영 현황이 기록된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연수전에 대해 살펴본다. (02)2011-1960.

'실존'에서 그려낸 초실존의 세계

허허당 스님 기획초대전 '겁외경풍'
부산 이웰갤러리 9월 3일~10월 21일

실존 밖 세계 표현한 초실존화 27점
어려운 건강상태서 그려낸 역작들


허허당, 겁외풍경, 65.1×90.9cm, 2022

'실존'을 넘어선 세계, 겁외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 또 다른 선화의 세계를 모색한 전시가 열린다. 지난해 '화엄의 세계' 展으로 선화의 새로운 세계를 선보였던 허허당 스님이 9월 3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10월 21일까지 부산 이웰갤러리 센텀점에서 기획초대전 '허허당-겁외풍경'을 연다. 센텀점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허허당 스님은 스스로 '초실존화'라고 명명한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허허당 스님의 초실존화는 인간의 실존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생명의 세계를 표현하며 생명의 본질에 역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실존의 세계를 넘어 우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자 그 노력의 회화적 표현이다. 허허당 스님은 "나의 작품은 한국화도 추상화도 현대화도 아닌 '초실존화'"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미술시장에는 초실존화의 열풍이 불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상화는 작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현대화는 문명의 냄새가 너무 짙어 '초실존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됐다"고도 말했다.

사유의 길에서 만나는 고요와 떨림, 설렘에 이어 명상의 길로 이끄는 겁외의 풍경은 세상 밖의 세계를 만나게 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허허당 스님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의 나쁜 건강상태에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어낸 그림이다.

김경희 이웰갤러리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웰갤러리 센텀점을 개관하며 열었던 개관전 '허허당-화엄의 세계'는 전시장을 찾았던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전시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허허당 스님이 어려움 속에서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완성된 작품들과 마주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으며, 긴 시간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또 다시 스님의 그림으로 기념전을 가질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고 전시의 취지와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9월 7일과 10월 1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허허당 스님은 포항 비학산 자락의 휴유암(쉬고 노는 집) 주석하며 그림 그리는 일을 수행으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을 시작했다. 1984년 '허허당 선회전'(중앙화랑)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 전시 뿐 아니라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전시, 2010년 하와이 전시 등 해외에서도 전시를 한 바 있다. (051)755-4180. 박재완 기자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미술사 대가 엄선 '걸작 반가사유상'

문명대 교수 '한국의 반가사유상'
韓반가사유상 걸작 엄선해 해설
반가사유상, 미륵신앙 대변 불상
"한반도, 미륵반가사유상의 성지"
암각화·韓조각사 해설서 준비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는 이만큼 인간의 실존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진실되게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일본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에게 보낸 찬사다.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이 신라에서 전해진 불상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반가사유상들은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매력을 가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상설로 전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한 '사유의 방'을 개관 3개월만에 10만 명이 다녀간 것도 반가사유상에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이 있어서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1세기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100여 점만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에도 세계 최고 걸작이라고 평할 수 있는 반가사유상들이 있다.

한국불교미술사학의 대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보 78·83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 충주 봉황리 마애반가사유상, 단석산 마애반가사유상을 꼽는다. 이들에 대해 문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한국의 반가사유상〉에서 "한국 미술의 최고 걸작품이자 세계 미술의 정점에 있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불교조각"이라고 평한다.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원로학자가 연구했던 반가사유상에 대한 개론과 걸작 반가사유상 6선의 상세한 해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반가사유상의 조형이 싯다르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번뇌를 보고 사유하는 모습인지, 미륵보살이 사유하는 모습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문 명예교수는 '미륵보살'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6~7세기 한반도는 유가유식 사상이 성행했으므로 그 사상의 시조이자 교주인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 유행했다. 그렇기에 태자와 비슷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승화된 미륵보살을 낭도(郎徒)의 신앙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반도는 미륵반가사유상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원로학자가 선정한 걸작 반가사유상 6선에 대한 해설들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금동반가사유상"이라며 "장식적이면서 강직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문 명예교수는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이 "영주 흑석사나 북지리 대사 등 삼국시대의 유가유식계 고찰에서 봉안됐던 불상"으로 추정하며 고구려가 영주 지역을 점령했던 시대의 고구려 장인이나 그 후예 장인들이 조성한 "고구려 영향의 신라 금동반가사유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우아한 반가사유상의 정점에 서 있는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은 현 높이 172cm, 복원 총 높이 450cm 내외의 초대형 석조반가사유상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반가사유상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대형 반가상이지만 애석하게도 허리 이상인 상체와 머리 부분이 절단돼 없어져 그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문 명예교수는 "이 상은 암반 위에 건립된 금당 안에 봉안됐던 유가유식계 사찰의 본존미륵반가사유상인데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상이 500m 떨어진 수월암 석실 속 마애(미륵)불상"이라면서 "신라의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소개한 충주 봉황리 마애반가사유상과 단석산 마애반가사유상에 대해서도 "신라 유가유식 신앙의 예배상으로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최고 걸작들"이라고 강조했다.

반가사유상 해설서를 집필한 문 명예교수의 나이는 올해로 83세이지만, 학구열은 지금도 젊은 학자 못지않다. 당장 올해 10월 중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서를 발간하며, 내년에는 한국의 조각사를 망라하는 개론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세계유산 통도사·미륵사지, '미디어아트'로 장엄

문화재청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9~11월 전국 8개 지자체서 열려
통도사, 첫 참가… 9월 3일 개막
다양한 '미디어쇼'로 사찰 수놓아


올해 처음 선보이는 통도사의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와 익산 미륵사지가 최첨단 미디어아트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한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를 개최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익산 미륵사지와 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 익산 '미륵사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린다. 양산 통도사를 비롯해 고창 고인돌유적, 함양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처음으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양산 통도사에서는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찰 창건 설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화엄 세계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통도사의 미디어아트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맵핑·빛 오브제·디지털 민화 특별전의 총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통도사 산문을 지나 무풍한송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빛 오브제 프로그램은 중중무진 화엄세계에 드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미디어콘텐츠 맵을 시작으로 화엄의 진리를 설한 '법성게' 오브제, 홀로그램, 미러 오브제, 라이팅 오브제 등 다양한 볼거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매일 저녁 오후 8시, 8시 30분에 디지털 미디어 맵핑으로 투사·상영되는 미디어아트 메인쇼는 '화엄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하다'를 부제로 화엄으로의 첫걸음에서부터 종착지까지의 여정을 다양한 미디어아트의 연출기법을 통해 그려낸다. 디지털 민화 특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동안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민화 작품 15점을 초고화질 화면으로 생생하게 담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는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적공지탑불휴'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드론 쇼, 공공 미술 프로젝트, 관람객 동작에 반응하는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조선왕실 원불 흑석사 아미타불좌상 조명한다

한국미술사연구소, 9월 17일 국박서 학술대회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600년 왕실 원불 흑석사의 국보 목조아마타불좌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종합적 연구'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불상의 양식·복장물·전적류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티베트식 명(明)양식 불상과의 비교 연구(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 연구(고승희 동국대 외래교수)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의 미술사학적 연구(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소개된다.

토론자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상임전문위원,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이수예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국보로 지정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조선 초기 양식과 더불어 티베트계 명양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불상으로 1993년 그 가치가 인정돼 국보로 지정됐다"며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29회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삼보 귀의하옵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넉넉한 불령산 자락의 품에서 좋은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히 총동문회소식을 알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2시
장소 자양전
문의 054-432-2652

안건 1. 총동문회 운영및 발전방안
2. 장학금 지급
3. 경조사 지급
4. 기타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9



▶ 80회 예고
아쇼까왕은 날마다 연회를 연다. 승리한 대군들은 다야강 강변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울리 언덕까지 끌고 온 이동법당에서 삿다 장로는 법문을 한다. 이때 아쇼까왕은 세상을 담마로 정복하는 전륜성왕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아쇼까왕, 다야강에 칼을 버리다

마우리아국 기마부대 5만 명은 바람처럼 거침없이 달리다가 멈추었다. 기마부대장이 손을 들어 수신호를 보냈다. 순간, 깔링가국 보병이 쏘는 활들이 허공에서 비 오듯 쏟아졌다. 기마대장이 전령에게 지시했다.

"활 공격이 주춤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어라."

"대장님, 대왕님께서 탄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대왕님께서 대노하실 것입니다."

"알았다. 공격하라!"

아쇼까왕의 기마부대 5만 명 중에 장창을 든 기마병이 먼저 달렸다. 깔링가국 군사들의 화살은 조금 전보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전술이었다. 기마부대 장창기병이 가까이 다가가자 일제히 화살공격을 했다. 그러자 십여 마리의 군마가 화살을 맞고 나뒹굴었다. 기마병들도 목에 화살을 맞고 군마에서 떨어졌다.

깔링가국의 방어선은 뚫리지 않고 견고했다. 피아간에 살상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반나절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2선에서 피아간의 공방을 보고 있던 아쇼까왕이 기마부대장을 불렀다.

"대장, 5만 명의 기병을 더 줄 테니 정면공격을 하면서 양쪽 측면도 공격하시오. 그러면 적들이 방어대오가 흐트러지면서 동요할 것이오."

1진 기마병들은 예비대로 빠졌던 2진이 올 때까지 전열을 가다듬었다. 군마와 군사를 조금 잃었지만 아직은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다. 이윽고 2진이 오자마자 아쇼까왕은 기마부대 5만 명을 깔링가국 보병의 정면, 2진 5만 명은 두 부대로 나누어 측면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두려워 말고 노도와 같이 공격하라!"

"적군은 예상치 못한 측면공격에 무너질 것이다!"

10만 명의 기마부대이므로 전술이 가능한 정면공격과 양동작전이었다.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10만 명의 기마병들은 깔링가국 보병 10만 명을 세 군데서 일제히 공격했다. 그제야 깔링가국 보병들이 정면방어만 하다가 갈팡질팡 흔들렸다. 한쪽 측면이 무너지자 맥없이 방어대오가 무너졌다. 이윽고 기마병들이 장창과 긴 칼을 휘두르며 깔링가국 보병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다. 그때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전령참모를 불러 지시했다.

"기마부대장에게 전하라! 전투코끼리가 돌진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후퇴하라고 알려라!"

명령을 받은 기마부대 1진, 2진이 양옆으로 재빠르게 물러섰다. 작전상 후퇴였다. 아쇼까왕은 기마부대가 깔링가국 보병의 방어대오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음 작전은 코끼리부대에게 맡겼다.

코끼리부대 작전은 잔인했다. 비탈에서 바윗덩어리를 굴리는 것처럼 인정사정없었다. 성난 전투코끼리들은 깔링가국 보병들을 짓밟고 종횡무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러자 피투성이가 된 깔링가국 보병들의 다리와 팔이 으깨어지고 배가 터져 긴 창자들이 허옇게 튀어나왔다.

다야강을 건너지 못한 깔링가국 보병들은 화살이 떨어지자 방패와 장창을 들고 옥쇄작전을 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둥그렇게 진을 짜고 장창을 휘두르며 아쇼까왕의 기마병과 코끼리부대 군사와 맞섰다. 아쇼까왕이 진노했다.

"마우리아국 군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마!"

아쇼까왕이 진노하자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가 더 거세게 번갈아가며 공격했다. 살상자들의 핏물이 강변 모래밭까지 붉게 적셨다. 결국 깔링가국 정예보병의 전세는 오후 늦게야 꺾였다. 이윽고 아쇼까왕은 후선에 대기하고 있던 보병 30만 명을 투입했다. 아쇼까왕의 대군은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깔링가국 잔병을 소탕했다. 기마부대장이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다야강 건너편에서 저항하던 보병도 토멸했습니다."

"다울리 언덕 정상의 적군 지휘소는 어떻소? 그곳에 아직도 총사령관인 왕이 있지 않소?"

"다울리성의 적군은 독안에 든 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군사가 포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있으니 오늘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소."

다울리 언덕 뒤 깔링가국 도시의 동태를 살펴온 정찰대장이 보고했다.

"적 기마부대는 민가를 의지해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건 화공작전으로 소탕할 수 있으니 잘 됐소."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기마부대가 민가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화공작전을 생각했다. 불을 지르면 깔링가국 기마부대의 기동성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살려고 도망쳐 나올 것이었다.

다야강 강변을 완전히 장악한 아쇼까왕 대군은 보병만으로 다울리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다.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이 밤사이에 퇴로를 만들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대장들을 임시군막으로 불러놓고 차후 공격작전 회의를 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다울리 언덕을 가능한 한 빨리 점령하시오. 나는 적의 왕이 머물렀던 다울리성을 나의 지휘소로 삼겠소."

"먼동이 트는 시각에 보병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마부대나 코끼리부대는 평야지대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다울리 언덕에서는 보병만 못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보병대장에게 새벽공격을 허락했다. 코끼리부대장이 말했다.

"저희들은 기마부대와 함께 다울리 언덕 뒤편에 있는 도시를 공격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소. 나는 도시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우리에겐 포로도 필요합니다. 빠딸리뿌뜨라 외성을 완성하려면 많은 포로가 필요합니다."

"좋소. 내일은 오늘처럼 다 죽이지 않고 항복하는 적군이나 주민들은 포로로 삼겠소."

아쇼까왕은 호위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작전회의를 막 끝낼 무렵이었다. 경비대장이 다울리성을 수성하고 있던 깔링가국 총사령관을 데리고 왔다. 왕의 신분인 그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적장이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오?"

"대왕께 용서를 빌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왜 나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오?"

"나는 두 가지의 죄를 지었소. 첫째는 나의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마우리아국 위대한 대왕께 복종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소."

아쇼까왕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어떻게 용서를 받고 싶소?"

"나를 죽이시오. 대신 깔링가국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바라오."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그대의 말은 진심인 것 같소. 그러나 다울리 언덕 뒤편 도시에 숨어 있는 그대의 군사는 후환을 없애야 하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소. 나는 불을 질러 도시를 없애버리겠소."

"대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나의 부하들을 만나서 설득하겠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가 아니겠소?"

"그대를 믿어 보겠소."

깔링가국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왕인 그가 나가자 정찰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왕님이시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온다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 칼을 받을 것이오. 대신 나는 그와 약속한 대로 깔링가국 백성들을 모두 살려줄 것이오. 다만 살아 있는 군사만 포로로 데리고 가겠소."

다음날 새벽.

깔링가국 총사령관과 함께 온 그의 기마부대장도 아쇼까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쇼까왕은 자신 앞에 나타난 깔링가국 총사령관과 어젯밤에 한 약속을 철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왕과 왕이 한 말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호위대장이 다야강 강변에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을 처형하는 사형장 자리를 닦았다. 그때 아쇼까왕은 전투코끼리를 타고 다울리성 언덕 뒤편의 도시를 돌고 있었다. 위험하므로 수십 명의 기마병을 거느린 기마부대장이 앞섰고, 수십 명의 경계병을 지휘하는 경비대장이 뒤따랐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저 아이는 왜 이른아침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입니다."

"저 노파는 왜 웃고 있는 것이오?"

"어제 다야강 전투에서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노파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다울리 언덕을 돌아 다야강 강변으로 나왔다. 다야강 강변은 도시보다 더욱 참혹했다. 여기저기에 찢겨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 까악까악 음산하게 우짖었다.

"대장, 여기에 있는 시신들은 얼마나 되오?"

"적군 보병이 10만 명이었으니 시신도 10만 구일 것입니다."

"깔링가국 왕의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소. 그는 내게 자기 군사를 사지로 몰아놓은 죄를 저질렀으니 죽여 달라고 말했소."

"패전한 총사령관이자 왕이니 당연히 대왕님 칼에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적군은 얼마나 되오?"

"15만 명입니다. 그것도 왕이 항복해서 살아난 목숨입니다. 포로로 삼아 빠딸리뿌뜨라까지 압송할 것입니다."

"호위대장."

"예, 대왕님."

"나는 선왕의 숙원인 깔링가국을 정벌했소. 깔링가국 왕이 항복했으니 나는 완벽하게 승리를 한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선왕의 숙원을 해결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나 아쇼까왕의 얼굴은 어두웠다. 호위대장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쇼까왕의 표정은 슬프기까지 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미쳐버린 노파와 울부짖는 아이들, 까마귀 떼를 부르는 피투성이의 시신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포로가 되는 군사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소. 나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소."

이윽고 아쇼까왕은 사형장이 만들어진 강변으로 갔다. 사형장 앞에는 마우리아국 대군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사형장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은 군사들에게 승리의 쾌감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이었던 그의 두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고, 그의 두 손과 발은 밧줄에 묶여 있었다.

아쇼까왕은 마우리아국 총사령관이자 대왕으로서 위엄을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이 차고 있던 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들었다. 긴 칼이 아침햇살에 번쩍였다. 순식간에 깔링가국 왕의 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쇼까왕은 피 묻은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쇼까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도열해 있던 군사를 놀라게 했다.

"나의 군사들이여, 나는 오늘 이후부터 칼 대신 담마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라. 담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대장들이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아쇼까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이동법당 수레 책임자 삿다 장로가 나와 짧게 외쳤다.

"고따마 붓다의 진리를 따르고 의지하는 대왕을 우리 사문들은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칼을 버리고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는 아쇼까왕을 찬탄하는 삿다 장로의 짧은 법문이었다.〈계속〉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⑯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4

▶한줄요약
보문은 출가한 지 일주일 남짓 됐을 때 '일차 견성'을 했다. '무자 화두'가 얼음 녹듯 풀리고 온 세상이 훤히 밝아오는 경험을 했다.



해우소 갈 때도 화두 성성했던 선사



보문은 화두수행을 시작하면서 금방 삼매를 이루었다. 일주일 남짓 만에 일차견성을 이루었다. 사진은 수좌의 참선 모습.

9. 화두 삼매

한암(漢巖, 1876~1951) 가풍은 참선은 물론 다른 공부와 의례도 함께 닦았다. 한암은 "중이 되어 다섯 가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이 아니다"라며 참선, 간경, 염불, 의식, 포교 등 승가오칙을 만들어 실천하게 했다. 한암은 아침 공양을 마치면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가르쳤고, 탄허도 그 뜻을 받들어 간경 교학을 도맡았다. 보문은 참선 자리의 중심에 앉았다. 이에 대해 한암은 "내 상좌 가운데 선에 대한 지견이 투철한 사람은 보문뿐이다"라고 인정했다.

보문은 수행의 기록을 스스로 남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도 막았기에 그가 어떤 수행법으로 수행했는지, 화두 수행을 했다면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한암이 도문(道文, 1935~)에게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화두를 주었다니 보문에게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달리 볼 수도 있겠다.

봉암사결사 때 입승 소임자를 결정하기 위해 무자 화두를 놓고 법거량을 했는데, 보문의 소견이 수승해서 모두들 보문을 입승으로 추대했다는 증언이 있다. 또 보문이 대구 보현사에 주석할 때 신도가 달마도를 그려 와서 화제(畫題)를 부탁하면 '무(無)' 자 한 글자만 써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보문이 무자화두를 들고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문은 화두 수행을 시작하면서 금방 삼매를 이루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두 일화가 전한다. 보문이 상원사로 올라오는 신도들을 마중하러 내려가면서 화두일념으로 삼매에 들어갔음을 전해주는 일화가 있다. 보문은 관대걸이[세조가 개울 목욕을 하여 피부병이 나았는데 그때 의복을 벗어 걸어놓은 곳]를 지나 월정 삼거리까지 내려가서 오래 기다렸지만 신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훨씬 전에 상원사에 도착한 신도들은 벌써 불공을 마치고 하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삼매에 들어간 보문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신도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공양간 일을 할 때의 일화도 있다. 보문은 공양간 밥솥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선정에 들었다. 주지 석상(石霜, 1872~1947)이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 불을 끄고 탄 밥을 퍼냈다. 선방 대중들에게 탄 밥을 주며 석상이 말했다. "너희에게는 이것도 과하다. 보문스님이 태워준 밥이니 아무 말도 말고 다 먹어라. 나도 탄 밥을 먹어야겠다" 타성에 젖어 앉아있기만 하던 선방 대중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이들 일화는 보문이 동정일여[動靜一如,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경지] 너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보문은 걸어갈 때도 앉아서 일할 때도 삼매에 들었다. 일찍이 혜능은 '일행삼매(一行三昧)'와 '통류(通流)'를 가르쳤다. 걸어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곧은 마음[直心]을 행하는 일행삼매를 확립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통류를 강조했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通流]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되는 것이라고 했다. 외형이나 바깥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원각경〉의 가르침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구차제정[九次第定, 초선정(初禪定)~사선정(四禪定),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멸진정(滅盡定)]에서도 삼매에서 시작되는 이선정은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멸진정으로 귀결된다. 삼매는 문득 깨달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차제정 대장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보문은 막 수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든든한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삼매 들어
선정들어 돌부리 걸려 넘어지기도
오대산 오르내리며 오도송 읊어내
깨달음 인정받고 '자운' 법호 받아

10. 용맹정진과 견성

보문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용맹정진에 동참한다. 지암(智庵, 1884~1969)이 은사 한암을 위하여 상원사 영산전 자리에 'ㄷ' 자형의 집을 지었는데 한암은 그 집을 다른 용도로 쓰라며 스스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수좌들은 그 집에서 용맹정진하기로 원을 세웠다. 현칙, 동성, 도성, 경우 등 30여 명이 동참했고 보문도 말석에 앉을 수 있었다. 이들은 90일간 용맹정진을 결의하면서 맹세했다. 첫째, 90일간 잠을 자지 않는다. 둘째,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는 오대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 셋째, 수행 중에 죽으면 시신을 눈 속에 두었다가 90일이 지난 뒤에 장례를 치른다.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지만 보문은 흐트러짐 없이 수행에 몰입했다. 더 성성하게 화두를 들기 위해서 아예 툇마루로 나가 살을 에는 오대산 겨울바람을 맞으며 앉기도 했다. 어느 날, 보문은 해우소로 가고 있었다. 해우소로 가는 길에도 보문의 화두는 끊어지지 않고 성성했다. '나'와 '세계'는 이미 사라져 화두만 남았다. 화두가 해우소로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관대걸이를 지나 월정 삼거리까지 갈 때의 화두보다 더 성성하고 적적했다. 그러다 보문은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져 뒹굴었다.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을 모난 바위에 심하게 부딪혔다. 사라졌던 내가 되살아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심안'이 열리는 '일차 견성'을 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무'라고 대답한 도리가 얼음 녹듯 풀렸고 온 세상이 훤히 밝아오는 경험을 하였다.

한암의 제자이며 보문의 사제인 비룡(飛龍, 1901~2000)은 이때가 보문이 출가한 지 일주일 남짓 된 때라고 증언한다. 비슷한 상황을 당나라 현사(玄沙, 835~908)에게서 찾을 수 있다. 현사는 스승 설봉이 "제방을 행각하라"고 명하여 속세로 나가던 중 돌부리에 차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는 행각은 필요 없다며 그냥 돌아와 버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보문은 포행을 하거나 땔감을 마련한다고 오대산 자락을 오르내리며 오도송(悟道頌)을 쩌렁쩌렁 읊었다. 넘쳐나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 산속을 헤매기도 했다. 오대산은 겨울에 눈이 두껍게 쌓이기에 눈 속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위험했다.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다고 걱정한 수좌들이 보문을 한암에게 데려갔다. 그러자 보문이 은사 앞에서 오도송을 읊었다.

"땅을 차고 넘어진 나와 대지가 공하니/ 일만 문수도 전도상을 보이도다/ 푸르고 차가운 봉우리 끝에 둥근달 걸리니/ 달빛 맑은 허공이 한 물건 안에 들었네(蹴地[원문에는 '築指'로 표기됨]倒余大地空, 一萬文殊顚倒相, 碧寒峰頭月一輪, 照耀淸空一物中)" (일타, 〈평창 월정사 보문당 현로대선사비문〉)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어 공하고, '한 물건' 그 자체로 갈무리된 경지를 보였다. 한암이 보고 크게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마당 가운데 보물 나무[극락정토에 일곱 줄로 서 있는 나무] 자라났으니/ 보문 고불당[옛 부처님. 오래된 불상. 덕 높은 스님]이로다/ 오늘부터 오묘한 길[玄路. 보문이 출가 후 받은 법명]로 가서/ 뭇 중생들을 가르쳐 인도하라(庭中寶樹生, 普門古佛堂, 從此玄路去, 開示諸群生)"

한암은 이렇게 보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가하고 자운(慈雲)이란 법호를 내렸다. 보문은 그 뒤로는 오도송을 읊지 않고 조용히 더 치열하게 정진을 이어갔다.

11. 마취 없는 대수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전설들이 생겨났다. 해우소로 가다 넘어져 깨달아 인가를 받은 것이 며칠 만에 이뤄진 일이듯, 보문이 육신의 병을 얻게 된 것도 짧은 시일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보문이 앓게 된 병은 결핵, 늑막염, 갈비뼈 종양 등으로 전해진다. 어떤 병이라고 하든 전설 간 공통되는 부분은 갈비뼈 3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마취 없이 받는다는 것이다. 마취를 하지 않는 이유도 전설 간 차이가 있으니 돈이 모자라서라든가 병원에 마취약 없어서라든가 보문 스스로가 마취를 거부했다든가 등으로 설명한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보문은 마취를 하지 않고 갈비뼈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다.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보문은 완전한 화두삼매에 들어간 시점에서 수술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번째 갈비뼈를 거의 다 잘라내어 가는 순간 화두를 놓치게 되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다. 보문은 자기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수중에 3일간의 입원비밖에 없었던 그는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3일째 되는 날 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 사실은 집도의를 크게 감동시켜 불자가 되게 했고, 밖으로 퍼져나간 소문은 화두 수행의 위대함을 중생들이 인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보문을 탁월한 도인의 모습으로 널리 알렸다. 그렇지만 무리한 수술을 하고 난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온전한 치료를 받지 않은 탓에 보문의 건강은 수술 후 더 나빠지게 되었다.

갈비뼈에 병이 생긴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가 해우소로 가다 넘어진 것 말고는 특별한 외상을 입은 일이 없었으니 그때 넘어진 충격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해우소로 가는 길의 돌부리는 보문을 깨닫게 해주었으면서도 위대한 선승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병을 유발했다. 그러니 '그 일'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했으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다. 돌부리는 좋고 나쁘다는 분별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중도를 완전하게 가르친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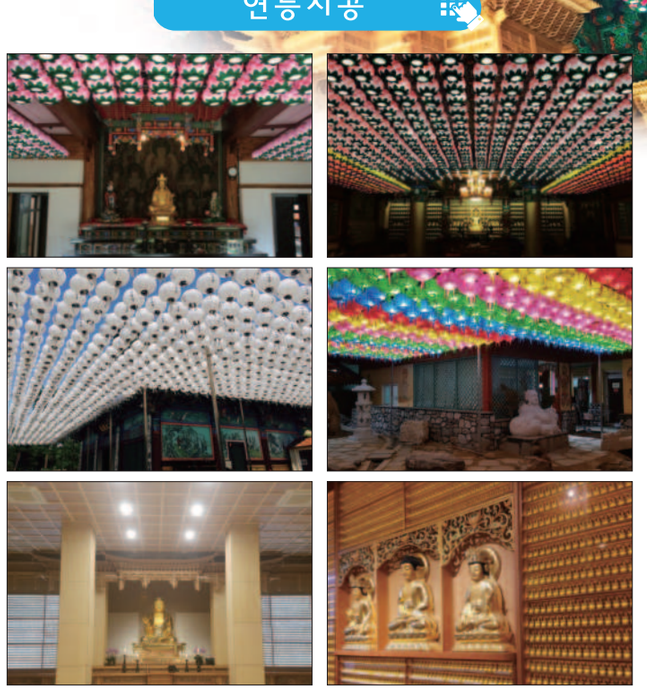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⑯ 두껍전과 자고새 본생담

▶ 한줄요약
부처님 본생담 중 하나인 '자고새 이야기'는 한국에는 고려시대 이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고전 소설인 〈두껍전〉의 기원이며, '권학사상'과 함께 여러 형태로 전승됐다.



동물들이 전하는 깨달음 이야기

우리의 고전 소설 혹은 전래동화 중에는 특히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웃음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많다. 의인화되는 동물에는 토끼, 거북이, 호랑이, 여우, 학, 곰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두꺼비는 독을 뿜는 지네와 싸우거나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업을 씻는 천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여 주로 선한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꺼비를 의인화해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을 통틀어서 '두껍전류 고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숲속 동물들의 나이 자랑으로 널리 알려진 '두껍전'이다. '두껍전'은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작자나 연대 미상의 동물 우화소설로서, 노루가 주최하는 잔치에 모인 동물들이 상좌(上座)를 다투며 서로 어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슬기와 연륜을 뽐내는 이야기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조선 인조 때 충청도 오룡산에서 열린 노루의 생일 축하연에 모든 짐승들이 초대된다. 토끼가 제안하기를 나이에 따라 윗자리를 정하되, 문견이 많고 적음을 그 기준으로 하자고 하여 두꺼비와 여우가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여우가 천하를 편력한 이야기를 하자 두꺼비는 고금의 역사로 맞섰다. 이에 여우가 다시 하늘나라를 구경한 이야기와 천문·지리·시서의 지식으로 맞서자, 두꺼비는 둔갑술·병법·관상법 등으로 응수해 결국 두꺼비가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우는 이에 불만을 품고 갖은 꾀로 두꺼비를 골탕먹이려 했으나, 더욱 창피만 당하고 결국 윗자리를 두꺼비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이다.

어린 시절 동화책이나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했던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고문편에도 실려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두껍전'의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잘 모를 것이다. 547편으로 이뤄진 〈팔리어 자타카〉의 37번째 '자고새 자타카'(Tittira jataka)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① 태국 방콕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 사원 벽화 〈자고새 자타카〉의 부분. 태국 아유타야 왕국시기인 15세기 경 조성됐다.

히말라야의 숲속에 나이를 알 수 없는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항상 그 나무 아래에서 코끼리, 자고새, 원숭이가 앉아서 놀았는데 어느 날 원숭이가 서로 예의 없이 지냈음을 아쉬워하며 이제부터 공경하며 살자고 이야기했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공경하기 위해서 서로의 나이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코끼리는 이 나무의 꼭대기가 자신의 배꼽에 닿았을 때부터 보아왔다고 자랑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나무의 어린 새싹을 뜯어 먹었다고 말하며, 가장 나이가 많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자고새가 이 나무는 옛날 먼 곳에 있던 용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그 씨를 배설한 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자고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으며, 코끼리는 목건련, 원숭이는 사리불이었다고 한다.

이 '자고새 자타카' 이야기는 태국 수코타이 박물관(Sukhothai Museum)과 태국 방콕의 왕실 사원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 사원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47종의 자타카를 모두 표현한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 사원 내부의 벽화에는 '자고새 자타카'가 잘 표현되어 있다. 사각형의 화면 오른쪽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히말라야 큰 나무가 묘사돼 있으며, 그 아래에 등장인물인 코끼리, 원숭이, 자고새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도해하고 있다.(그림①)

이 '자고새 자타카'는 갠지즈강 중류에서 성립돼 팔리어 경전에 실렸고, 이후 대승불교에도 전해졌다. 불야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7세기경 한역한 〈십송율〉(十誦律) 권 34권 '사막새 본생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여러 비구가 서로들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비구들을 모아 말씀하셨다. 과거세 어느 때에 설산(雪山, 히말라야) 기슭에 세 마리의 동물이 함께 살았는데 첫째가 사막새, 두 번째가 원숭이, 세 번째가 코끼리였느니라. 이 세 마리의 동물은 서로를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먼저 태어난 자가 공양하고 존중받으며 우리를 교화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사막새와 원숭이가 코끼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자, 코끼리가 그곳에 있던 커다란 필발나무를 보며 내가 어렸을 적에 이 나무가 내 배 밑에 닿지도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이번에는 코끼리와 사막새가 원숭이에게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자, 원숭이가 어렸을 적 땅바닥에 앉아서 이 나무를 잡고 머리로 누르면 나무가 땅바닥으로 휘어지곤 했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사막새에게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자, 사막새가 이곳의 커다란 필발나무는 내가 과거의 언젠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여기에 배설해 이 나무가 생겨나서 이렇게 크게 자랐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숭이가 사막새에게 그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그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리다. 그대는 마땅히 나를 위해 설법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코끼리는 원숭이를 공경해 그로부터 법을 듣고 나서 다른 코끼리에게도 설법해 줬고, 원숭이는 사막새를 공경해 그로부터 법을 전해 듣고 나서 다른 원숭이에게도 설법해 줬으며, 이 사막새가 다시 다른 사막새에게도 설법해 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때부터 이 사막새의 법도가 널리 전파돼 여러 하늘과 인간 세상까지 알려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축생들이 무슨 이유로 선업을 지으며 다시는 인간들의 곡식을 훔쳐가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아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축생들도 서로들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널리 사막새의 법도를 익히고 5계(戒)를 받들었으므로, 그 목숨이 다하자 모두 하늘나라에 태어났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사막새가 바로 나였고, 원숭이는 지금의 사리불이고 코끼리는 지금의 목건련이다."



그림② 1926년 박문서관에서 출간한 〈두껍전〉 표지.

> 동물 의인화 통해 가르침 전해
> 한국의 고전 소설 '두껍전' 기원
> 고려대장경서 등장…앞서 전승
> 권학사상 담겨 여러 형태 변형

팔리어 '자고새 자타카'와 〈십송율〉 '사막새 본생담'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배경은 똑같이 히말라야이며 등장인물은 각각 코끼리, 원숭이, 자고새 그리고 코끼리, 원숭이, 사막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새만 자고새 혹은 사막새로 다를 뿐, 동물들이 이야기한 자신들의 나잇대 묘사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끼리는 목건련의 전생, 원숭이는 사리불의 전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고새 자타카' 혹은 '사막새 본생담'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그 존재를 고려시대 때 편찬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지은 〈민옹전〉(閔翁傳)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조선 후기 소설의 형태로 '두껍전'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섬동지전'(蟾同知傳) '섬처사전'(蟾處士傳) '섬공전'(蟾公傳) '녹처사연회'(鹿處士宴會) '옥섬전'(玉蟾傳) '금섬전'(金蟾傳) 등의 여러 이본이 있을 정도로 각계각층에 유행했다.

'두껍전'이 이처럼 유행한 배경에는 아마도 어른을 공경하는 '장유유서'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권학사상'이 조선 후기 사회적 사상과 잘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징그럽고 힘도 없으며 어리석어 보이지만, 겉모습과 달리 슬기와 지혜를 갖춘 두꺼비를 통해 외형보다는 속에 든 내면이 중요하다는 가르침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18세기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 박지원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여겨 신분이나 권력 등이 아닌 오로지 경륜과 지혜를 겨루는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서술했을지도 모른다.

경험과 지혜가 겉모습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고새를 모습이 흉한 두꺼비로 바꿔 대중의 문학으로 만든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과 21세기의 사회모순을 미리 예견하신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日人 팔아넘긴 부처님, 있을 곳 진정 어딘가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⑥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에 현존하는 최대(最大) 철불은 무엇일까. 바로 하남 하사창동 출토 철조여래좌상(이하 하사창동 철불)으로 높이가 2.81m, 무게는 무려 6.2t에 달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대좌의 높이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약 4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한다. 공간 자체를 압도하는 철불의 위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한다.

천왕사와 하사창동 철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이유로 조성 · 봉안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옛 경기 광주)의 절터에서 출토됐으며, 인근 발굴조사를 통해 목탑의 심초석과 건물지, 기단들이 확인됐다. 또한 목탑지 주변에서 '천왕(天王)', '왕사(王寺)' 명의 기와편이 출토돼 해당 지역이 '천왕사지'임을 알 수 있게 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하남 천왕사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창건된 사찰이며, 고려 왕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에 따르면 태조 왕건은 원종대사 찬유를 천왕사에 주석시켜 하남 · 광주 지역에서 불법을 펴도록 했다.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철불은 주로 경기 광주, 강원도 원주, 충남 서산, 충북 충주 등 남한강 유역과 중부지방에서 나타난다. 이는 고려 태조의 불교정책과 신앙의 시대적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보경 동국대 박물관 전임연구원은 '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의 함의와 기념비성'에서 하남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불상의 조성불사와 연결시켰다. 권 전임연구원은 "하남은 고려 건국 세력의 한 축인 한강 하류 근기지역, 충청도 북부지역, 나주 지역으로 묶이는 서남 해안 세력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며 "고려 통일 이후 전쟁 무기의 평화적인 회수와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태조 왕건의 발원으로 하사창동 철불좌상이 조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인 매도해 박물관 소장품으로

고려 태조의 발원으로 조성됐을 기념비적 철불과 이를 봉안한 천왕사가 어떻게 폐사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사창동 철불이 다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다.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에 대한 기록은 다이쇼 5년(1916) 발간 〈고적조사보고〉와 다이쇼 6년(1917) 발간 〈고적조사보고〉에서 간단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1917년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상세한 편인데, 정리한 내용은 이와 같다.

"서부면 하사창리 객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 낮은 토단이 있다. 동서 직경 약 27척 5촌, 남북 직경 약 26척 5촌이다. 이곳에 철불이 동서에 나란히 남면하고 있다. 서쪽 철불이 크고 동쪽의 철불은 작은데, 7~8년 전 이왕가박물관으로 운반됐고, 높이 2칸 정도 기와로 이루어진 작은 집이 남아있었으나, 그마저도 그 후 자연히 흐드러졌다고 한다. 지금 이 토단은 무덤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덮개는 여러 사람들이 믿던 불상이 존재한 유적이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높이 2.8m, 현존하는 가장 큰 철불
압도하는 위용에 경외감이 '저절로'
하남 천왕사지 봉안됐을 거라 추정

타카다 큐고, 1911년 850엔에 판매해
철불, 이왕가박물관行…현 國博 소장
하남시 · 사암련 2020년부터 환수 염원
천왕사지 학술발굴 등 연구 선행돼야

이를 통해서 하사창동에 절터가 있었고, 당시에는 동서로 철불이 나란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서쪽 철불은 현재 하사창동 철불을 의미하며, 작은 동쪽 철불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운 시기를 7~8년 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사창동 철불이 이운된 것은 1911년 이후다. 당시 불상의 소유자였던 타카다 큐고(高田久吾)가 1911년 2월 20일 850엔의 대금을 받고 불상을 이왕가박물관에 팔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한말 기준 850엔은 현재 17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이왕가박물관은 조선 5대 궁궐 가운데 하나인 창경궁 일곽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박물관이다. 1912년에 발간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 따르면 당시 소장품은 총 1만 2230점에 달했다. 수집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추진됐기에 이왕가박물관은 발의 초기부터 유물 구입에 열을 올렸고, 4년 만에 1만 2000여 점의 소장품을 마련됐다.



국보로 지정된 하사창동 출토 철조여래좌상. 1911년 일본인이 850엔에 이왕가박물관에 팔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의 지난해 연등회 제등행렬. 하사창동 철불을 재현해 대중에게 알렸다.

그런 이유로 이왕가박물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왕가박물관의 설립은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 · 총독부의 문화정책의 전개였으며 실질적으로도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목수현)"고 비판하고 있다.

일제 문화정책 정책의 산물인 이왕가박물관의 수집품이 된 하사창동 철불은 현재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다.

환수 여론 재기… 신중론도

하사창동 철불을 제자리로 모셔야 한다는 환수 의견들이 제기된 것은 2020년 즈음이다.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역사박물관은 2020년 9월 '하남의 불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하남역사박물관에 재현품을 조성 · 전시했다. 당시 김상호 하남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남 교산신도시 역사문화지구에 박물관이 제대로 건립되면 하사창동 철불을 다시 모셔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도 지자체의 움직임에 호응했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 연등회에서 철불을 재현한 불상을 차량에 싣고 제등행렬을 펼쳤다. 당시 사암연합회 회장이었던 동효스님은 "하남지역에서 이처럼 위풍당당한 철불이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철불을 알릴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사창동 철불 환지본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역(寺域)을 알 수 없고, 사지의 복원 · 정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이 있지만, 같은 박물관으로의 이관은 진정한 '환지본처'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숙희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출현과 의미'에서 "문헌상의 광주 천왕사가 지금의 하남 천왕사 절터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이나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이 10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되는 점, 철불의 대좌로 추정되는 석조대좌가 천왕사지가 아닌 하사창동 절터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하남 천왕사 절터와 그 주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 천왕사의 창건시기와 규모, 후원세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천왕사지 철불의 원래 모습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남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성불사 주지 선광 스님은 "올바른 환지본처는 원소장처인 사찰로 돌아가는 것이다. 봉안처인 천왕사지에 대한 복원 ·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 운동은 조금 조심스럽다"면서 "우선적으로 천왕사지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무명이 홀연히 나타나 진여 물들여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㉜ 본래 자성과 훈습(薰習)

〈원문〉 승만 부인이 이렇게 알기 어려운 법을 말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하니라. 성품이 깨끗한 마음(自性淸淨心)에 물이 든다는 것은 알기 어려우니라. 두 가지 법이 알기 어려운 것이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려우며, 그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도 알기 어려우니라. 이 두 가지 법은 너와 큰 법을 성취한 보살마하살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성문들은 다만 부처의 말씀을 믿을 뿐이니라."

〈강설〉 지금까지 승만 부인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승만 부인을 칭찬하시고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려운 것이며,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것도 알기 어렵다고 하신다. 이 알기 어려운 두 가지는 대승의 보살들만 알 수 있고 성문들은 다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겨 믿을 뿐이라 하였다.

본래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어째서 번뇌에 물들게 되는 걸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의문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다. 다시 말해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면 어째서 중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답하는 말로 훈습(薰習)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본래 입던 새 옷이 입다 보면 때가 끼듯이 깨끗했던 것이 오염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종합 개론서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에서는 네 가지 훈습을 말하는데, 부처가 중생이 될 때는 무명훈습(無明薰習)이 일어나고 중생이 부처가 될 때는 진여훈습(眞如薰習)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진여와 무명이 서로 훈습을 한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추가적 훈습이 또 있어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면 향기와 악취의 두 가지 냄새가 있을 때 향기가 강하면 악취를 이기고 악취가 강하면 향기를 이기는 것처럼 우성(優性)이 열성(劣性)을 훈습한다는 논리를 전개 하였다. 진여에 의해서 무명이 훈습되면 무명에 없던 정법(淨法)이 있게 되고 무명에 의해 진여가 훈습되면 진여에 없던 염법(染法)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진여의 법은 참되고 한결같은 정법(淨法)이다. 여기에 무명이 홀연히 나타나 진여를 물들여 오염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염법(染法)을 유발시킨다. 그리하여 업식(業識)이 형성되어 이것이 다시 무명에 훈습을 가한다. 그 결과 진여의 마음이 실종되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잘못 의식되는 객관세계에 잡다한 현상들을 야기(惹起)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릇되게 의식된 객관 대상세계의 잡다한 현상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훈습이 또 일어나며 그로 인해 집착이 일어나고 온갖 업행(業行)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업식훈습과 경계훈습이 더해져 네 가지 훈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자성청정심인 여래장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이 염법 훈습으로 무명에 의해서 진여가 훈습되는 것이다. 왜 이런 훈습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알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여래장 자체가 불가사의하다고도 말했다. 여기에는 여래장인 진여는 훈습되지 않는 것인데 훈습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어나 파도가 움직인다.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날 때 바람이 파도의 원인이지만 이 바람의 원인은 소급해 말하지 않고 그냥 "홀연히"라고 말한다. 홀연히 바람이 일어나는 게 불가사의하고 움직이지 않던 물이 파도가 되어 일어나는 게 불가사의하다는 말이다.

무명을 무시무명(無始無明)이라고 하는 것도 무명의 출발은 시작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에도 '홀연히'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깨닫지 못한 불각(不覺)의 상태를 〈기신론〉에서는 여실히 진여법(眞如法)이 하나(一)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하여 이 불각심이 움직여서 망념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동서남북의 방향을 모르는 미혹한 사람이 본래의 정방(正方)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迷惑)이 생긴다고 하였다.

〈승만경〉에도 여래장연기설의 일단이 설해져 있다. 〈승만경〉의 중요한 내용이 여래장설로, 이는 여래장에 의지하여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아뢰야식설을 통합시켜 나온 것이 여래장연기설이다. 〈승만경〉, 〈능가경〉, 〈밀엄경〉 등과 〈기신론〉, 〈보성론〉 등에서 설해진 설로 화엄종의 현수도 이 설을 내세웠으며 교판상으로는 대승종교(大乘終敎)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반야바라밀 실천으로 전도몽상 깨뜨려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관세음보살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삼라만상 모든 현상계와 온갖 마음의 세계 모두가 공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실상반야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모두 공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야(般若)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입니다. 일체의 분별과 분석을 초월한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실상반야를 일러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본주의적(神本主義的)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전생의 업(業)에 의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숙명론적(宿命論的)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저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우연론적(偶然論的)견해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견들은 모두가 전도몽상(顚倒夢想)된 마음에서 나오는 삿된 견해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이 걸림이 없게 되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에 전도몽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게 되느니라."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말씀처럼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어리석고 어두운 전도몽상(顚倒夢想)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도몽상의 마음을 깨뜨리고 반야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걸림 없는 마음의 대자유를 얻어 영원한 행복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도 우리들의 전도몽상된 마음을 깨뜨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묘법연화경〉 '방편품제2'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옵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開) 맑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자(示)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우쳐(悟) 주시고자 하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도록(入)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느니라."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들의 전도몽상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중생들이 전도몽상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入] 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해 큰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큰 믿음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涅槃)의 행복한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설한 것입니다.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믿음은 도(道)이며, 진리이며. 실상입니다. 인간세계를 정화시키며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㉜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 ①

질문 사라지면 空을 알게 된 것

"수행승들이여, 대부분 뭇 삶은 이와 같이 욕망하고, 이와 같이 욕구하고, 이와 같이 의도하고 있다. '아, 참으로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대부분 뭇 삶은 이와 같이 욕망하고, 이와 같이 욕구하고, 이와 같이 의도하더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

한 수행승이 운문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운문선사는 "마른 똥막대기이니라"라고 하셨다. 뭇 삶은 항상 '지금보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선다. 수행을 하든 바깥의 삶을 살든 똑같이 찾아 나선다. 더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뭇 삶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구하며 헤맨다. 운문 선사는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질문에 '똥막대기'라고 대답했다. 뭇 삶은 운문 선사의 대답에 초점을 두고 '왜'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의 질문으로 초점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두고 묻는 물음이다. 하지만 그 전제라는 것이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알고 묻지 못한다. 만약 전체를 알고 묻는다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체의 그림을 보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없을 것이고, 부분만 알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뭇 삶은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각인되어 있다. 그럼 어디까지가 배움의 끝일까? 배움의 끝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마 배움의 끝은 없을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아간다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서 옆으로 땅을 파는 격이기 때문이다. 우물은 제자리에서 아래로 파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옆으로 파면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힘만 들뿐 물은 나오지 않는다.

완전함은 질문이 사라져버린,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면 찾아 나설 리 없고, 자연스레 찾아 나서는 자와 이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 텅 빈 것에 대한 앎이다. 그 후에는 차차 허상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오온을 '나'라고 알고 살아온 습(習) 때문에, 번민의 그림자가 조금 남아 있다. 번민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번민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번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수행은 대상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출가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심(下心)이다. 마음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존중한다는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존중하는 마음은 대상을 죽이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우쭐하고, 불필요한 것을 취하고, 탐하고, 성내고, 이간질하고,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하심은 번민을 많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마음이 생겨나면 수행은 먼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어온 것에 대한 참회로써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참회는 대상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몸, '나'라는 입, '나'라는 생각에 대한 참회이다. 내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대상에 대한 번민을 만든다. 내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심도 참회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이다.

고요히 앉아 움직임을 본다.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임처럼 보인다.
따라가는 자, 내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 움직임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1호 | 17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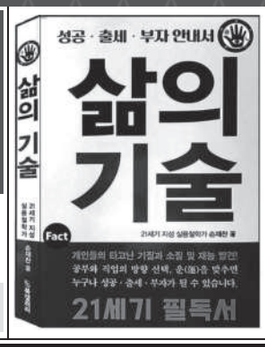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부전자리 구합니다.
받은 보시금은
사찰 불사하시는데
전부 돌려드립니다.
010-8955-9485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0-3807-0040

사찰음식점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청주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5883-2255
010-7921-2255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우리함께"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 남은 생을 절에서 살아가실 분(부부 환영)
- 장기간 집중기도 하실 분
- 장기요양 하실 분 • 출가 하실 분
- 주지스님 공양주겸 시봉하실 분
- 출가한 스님으로서 절을 운영하실 스님
- 끝까지 주지스님과 같이 수행하실 스님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는 절로써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처 010-8945-1424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험약수"로 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 대종사 : 033-33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직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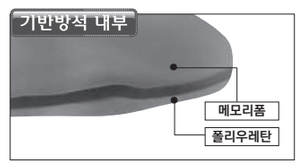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1호 | 18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3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가격협의
◎ 위치 : 인천
◎ 부지 : 700평
◎ 건평 : 약100평
◎ 주차, 공원
◎ 가액 : 11억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창원 사찰 양도합니다.
- 부지 총면적 :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79.12㎡(84평)
- 가액 : 12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창원시 마산 어시장 상가 3층 정오사
- 법당50평,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영가단
- 4층 스님방1칸, 에어컨2대, 난방기1대, 냉장고2대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554-3784

도심속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건강상 문제로 급양도

010-9286-100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토굴·별장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상담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자리
- 대지 253평, 건물 두채, 건물1 요사채 경량철골구조(벽돌마감) 연면적 30평, 방4개, 거실, 주방, 해우소2개, 건물2 경량철골구조, 법당 20평, 방2개, 해우소
- 가액 : 3억원

010-4866-8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7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남향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가액 : 11억원

010-5309-911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23평, 1동 약 25평, 2층 약6평
- 가액 : 3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 경남 밀양시, 5층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거리, 사주 하시는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해드리겠습니다.
- 보5백만원, 월43만원, 시설비4천 5백만원

010-9424-4777

양평, 임야 안내

-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동남향)
- 약 2,200평(계획관리+보존임야)
- 명상과 더불어 조용한 전원생활
- 향후 양평 ↔ 송파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투자성이 매우 좋은 저렴한 땅(평당 : 1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600평, 건물, 법당, 탑,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양도 합니다
- 시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동해면 봉암리 144-17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텃밭 260평,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바다보임)
- 가액 : 대출 5천만원 포함 3억 3천만원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수양관(암자) 급 안내

- 위치 : 대전 보문산 (대학병원 2개 5분거리)
- 대지 : 94평(뒤 보문산공원 전망대)
- 건평 : 40평(3존불, 탱화봉안)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5천만원 가능)

*경기이천에 사찰 급양도(30억원)

010-5407-8034

절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거리 42번 국도 옆
- 임야5000평, 대지300평, 암자6평
- 산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 가액 : 급양도(상담후 결정)

010-7922-207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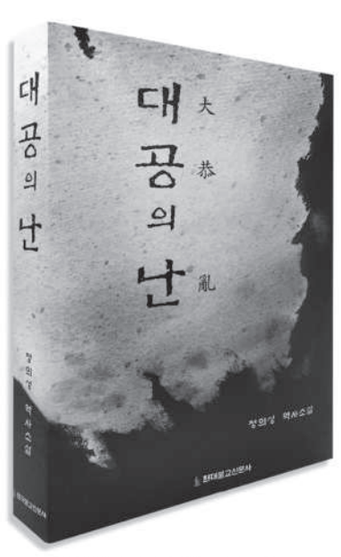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⑯ 경기 군포 수리사 고욤나무

좋은 일 있으면 좋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전통 패턴이 바뀐 예측 불가의 날씨로 곤혹스러운 계절,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절로 향하는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차단기를 지나 군포 2경으로 불리는 수리사를 오르는데 지난 폭우로 쓸려간 돌들이 길 옆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로 흙과 시멘트 간격이 드러나 있어 붕괴 두려움도 일고, 마르지 않은 숲에 갇힌 게 답답해 한바탕 폭포수라도 쏟아낼 듯한 음험한 기운에 움찔한다.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사 가는 길이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어린 시절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마법처럼 입에 담았던 문장이 〈천수경〉 첫 구절이라는 걸 안 뒤 아무 때나 꺼내지는 못 한 것 같다. 나 편하자고 막말로 악업을 짓는 자에게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은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장애다.

그래도 관심사라고 나무를 주의 깊게 보니 서해안에서 잘 자라는 비목이 잎을 번들거리고 있다. 군포(軍浦)에 포구의 포(浦) 자가 있으니 배가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내륙은 아니라는 지형 파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염색을 한다는 모시풀도 보고, 속명이 seoulensis(서울의)인 토종 식물 가는장구채도 신명나게 꽃을 피우고 있고, 꽃망울 자태가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가는여뀌에 눈길을 주다 보니 석축 위 하늘같은 일주문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알려준다.

높이 489m의 수리산 남서쪽 중턱에 자리한 수리사는 문화체육부 지정 전통사찰 제86호이다. 신라 진흥왕(540~576년) 때 창건되었다고 하니 천년이 넘은 고찰이다. 당시 왕손인 운산대사가 '몽불수기(夢佛受記)' 그러니까 부처님을 친견하고 당대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기별을 받아 견불산(見佛山)이라고 오랫동안 부르다가 수리사(修理寺) 이름을 따서 수리산이 되었다는데, 군포 이름 유래처럼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수리산과 수리사를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수리사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대웅전 등 36동의 전각과 12개의 부속암자를 지닐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다. 이후 홍의장군으로 불린 곽재우 장군이 절을 재건해 말년에 입산수도하였고, 근세에 들어 경허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며 약 2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선풍을 드날렸다는 곳이기도 한 수리사는 한국전쟁 때 또 모두 소실되었고, 지금의 수리사는 그 이후 모습이고, 현재도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군포 수리사 대웅전 가는 길에 있는 300년 추정 고욤나무.

일주문을 통과해 계단을 오르니 갓 쌓은 듯한 석축이 보이고, 옆길로 그곳을 지나야 대웅전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걸음을 재촉한다. 그때 눈에 들어온 나무는 흙을 덮은 파란 비늘 위로 우뚝 솟은 은행나무인데, 가는 사이 감 같은 열매가 녹색 잎 아래 푸르게 익어가고 있는 게 마음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곧바로 나무껍질을 보니 감나무 같기도 하고 돌배나무 같기도 한데, 지나는 어르신이 나무를 보는 게 좋았는지 불쑥 말씀을 하신다.

"수리사가 자랑하는 고욤나무입니다. 한 3백년은 되었을 거예요."

나무도 유한의 수명이 있는데, 3백년 되었다는 고욤나무는 난생처음이다. 들뜨면서도 즐겁게 살피는데, 조금 위에 있는 은행나무보다 키가 너무 작다. 오래 살았으면 고욤나무 최대 크기인 15m가 되어야 할 텐데, 절반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연유를 물으니, "모르죠. 벼락을 맞았는지, 어땠는지"라는 답이 온다. 그래도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감보다 작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고욤나무는 아름답다. 밑둥 속이 썩어 비어 있어도, 그 위에 고목을 분해시키려는 하얀 버섯이 피어 있어도, 감나무의 대목, 감나무의 어머니 고욤나무는 눈물 나도록 빛난다. 우리가 달게 먹는 감나무의 감은 야생의 고욤나무를 오랫동안 개량해 만든 인공 열매이기 때문이다.

고욤은 순 우리말이다. 감나무를 한자로 시(柿)라고 쓰는데, 작은 감이 열리니까 소시(小柿)가 된다. 얕잡아보거나 귀여운 거를 예전에 '고'라고 해서 앞에 '고'가 붙었고, 뒤에 '욤'은 '어미'의 옛말이다. 이름에 이미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

고욤나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결되어 아프게 대웅전 경내에 들어서는데, 그 옆 꽃이 피지 않은 코스모스 무리에 불쑥 솟은 부모은중경 삼층석탑이 또 아프다. 가까이 갈까, 말까, 불효자는 먹먹해지기만 한다. 그래서 또 주문을 외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성취하소서' 풀이는 어렵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풀이가 확 끌린다.

불효막심을 뉘우치고 뉘우쳐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머니가 불효자를 용서할까? 하산 길 포클레인이 묵직하게 지나가 숲가에 발을 디밀고는 빌고 또 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무 관세음보살.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⑮ 박정이의 '도갑사 통신'

아직 성불 못한 사람들의 성불을 위하여…

도갑사 통신/ 박정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월출산
도갑사 법당에는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하는 원력만 소리 없는
물레로 / 잣고 있다네
이곳에 재 넘어오는 바람은 가랑잎 닿는 대로
잎사귀 등에 제 소리를 복사해 넣고 있지만
잎은 애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등 굽히며 있고
염불이라는 문자도 귀에 닳아 획이 삐쳐 달아나
면서 / 읽어내기 어렵다네
그대 산행이라면 도갑사에 들지 말아야 하리
골짜기와 능선을 지나 단풍에 물들이며
천지가 그리움인 듯이
야호, 천지가 처음인 듯이 짚어본 자리
들녘이나 이쪽 산 폭포에 그림자 지는 것
혹시나 무념인 듯이
선인들이 지나갔다는 길이
그대 그런 산행이라면 도갑사로 들지 말아야 하리
법당은 오래오래 전에 슬픔이나 무상 같은 생각
들이 / 기왓장 하나씩 얹어 놓고
비바람에 스치는 인연이란 이름들이 세월의 빛깔
채색해 놓으면서 집이 되었다네
아, 집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여래 백여덟 번으로 가는 소리 없는
물레,
오체 안으로 삐거덕거리는 물레 돌리며 있고
재는 그 너머 또 다른 겹겹의 재를 넘어
제 온 길로 돌아가면
한밤 지나고 동트는 새벽
범종 소리에 발 얹고 갈 일이 까마득하다네
그 앞의 무릎이 나무며 길이며
바위라는 것만으로 아름답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들고 싶은 데가 집이라면
그대 도갑사로 들지 말아야 하리
도량 오르는 벼랑 그 아래 산 숲의 새 소리 귀
열고 / 차마 들지 말아야 하리.

–박정이 시집, 《오후가 증발한다》, 도서출판 명성서림, 2012–

아, 그렇구나. '도갑사 법당' 안에는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물레"를 "잣고 있다". 도갑사 법당 안 풍경이 수채화처럼 그려진다, 그것도 생 물감 뚝뚝 흘리며. 왜 수채화냐고? 생 물감 뚝뚝 흘리냐고? 가을이기 때문이다. 박정이 시인은 '가랑잎'이라는 시어 하나로 자신이 보내는 '도갑사 통신'이 가을임을 귀띔하고 있다. 가랑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법당도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을 테고, 거기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색색의 가을옷을 입고 있을 터이므로.

여기서 잠깐. 시의 법칙을 하나 알고 가자.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다. 시는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내뿜는 것이 아니다. 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내뿜는 건 맞다. 그러나 그냥 내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이라는 필터를 통해 반드시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라는 필터링 과정을 거친 뒤 내뿜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시, 진짜 시가 된다는 말이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란 무엇인가? 〈황무지〉로 유명한 T. S. 엘리엇에 의해 크게 발전된 문학이론으로서, 시인(창작자)이 표현하려는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뜻하는 문학 용어다. 즉, 개인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시 창작기법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심리나 정서, 사상을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객관적 상관물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의 정서(심리, 사상)와 간접화, 객관적 상관물(자연물)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다'는 표현은 객관적 상관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람의 정서인 외로움은 있지만 자연물이 없고, 외롭다는 정서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픈 사람인 내가 달을 보고 '저 달이 울고 있다' 고 표현하면 인간의 정서인 슬픔을 객관적 상관물인 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니 객관적 상관물이 갖추어야 할 요소 세 가지를 다 갖춘 셈이 된다. 이른바 감정이입의 형태로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한 것이다.(이상 위키백과 참조 및 인용)

시인이 어떻게 시의 주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시 읽기가 한층 즐겁고 맛도 깊어진다.

박정이 시인은 '도갑사 통신'에서 그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과 인식을 천부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물레"를 "잣다"는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 탁월하다. 시를 전혀 모르고 불교를 전혀 모르고 도갑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와 불교에 대한 친밀을 느끼고, 도갑사라는 절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게 만들고 있다.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도적 서술은 이 시의 절묘함을 더해주고 있다. 박정이 시인은 '충분히'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성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으로서의 '겸허'까지 불어넣고 있다. 이번 호의 불교시 감상으로 박정이 시인의 '도갑사 통신'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었다.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도적 진술 속에서 필자는 다른 불교시에서 맛보지 못한 인간적,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성과 겸허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불을 위해 법당에서 큰절(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을 "물레로/ 잣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대목에서 필자는 소름 끼치도록 시원한 서늘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박정이 시인은 가톨릭 신자다. 그럼에도 불교에 대한 이 같은 놀라운 사유는 불교가 이미 종교의 벽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이 시인의 불교에 대한 '놀라운 사유'가 기대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⑧ 마음훈련



▶한줄요약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마음수행으로 리더십을 키우자.

탁월한 리더 조건…"현재에 깨어서 집중을"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집중력과 직관력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심 등은 탁월한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리더도 있겠지만 대부분 훈련을 통해서도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간단한 마음챙김 기반의 리더십 훈련을 통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매일 한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훈련하기를 추천한다. 2~3주 정도 꾸준히 연습 하게되면 마음이 고요해 지고, 그 속에서 미묘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통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자 공감과 연결의 공간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자질이다.

먼저 탁월한 리더는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바로 습관을 만들어보자. 먼저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편안하게 호흡을 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준비가 되면, 당신이 닮고 싶거나 가장 존경하고 있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실제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나, 또는 당신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도 좋다.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본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영감 주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린다.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떠올랐으면,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있고, 그 사람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 사람의 정신과 함께하고 있음도 느껴본다. 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도 느껴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질문 두 개를 해보라. "수 많은 리더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이 떠올랐을까?" "이 사람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품고 호기심을 가지고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려보라. 억지로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인내심과 열린 가슴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그냥 바라본다. 그 사람의 탁월성이 떠오르면, 처음 한 두 가지는 한쪽으로 치워두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고 떠오른 탁월성을 적어보고, 성찰을 통해 발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가만히 성찰해 보라. 아마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성찰했던 리더의 탁월성이 이미 잠재해 있을 것이다. 그 싹을 키워 열매를 맺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탁월한 리더라는 가치를 향해 다가가는 것은 생각이 아닌 매일 매일의 실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탁월한 리더의 속성을 마음챙겨 성찰해보고,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 전념하여 행동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현재의 순간에 깨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리더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조직도 깨어서 움직인다. 리더의 마음이 현재를 떠나 방황하고 있으면, 조직도 중심을 잃게 된다. 대화나 회의를 할 때 온전히 현존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몰입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에 깨어서 집중하는 것은 탁월한 리더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역량은 생각만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간단한 마음챙김 훈련으로도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먼저 어느 장소이든 관계 없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본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다.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편안하게 호흡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본다. 코, 가슴, 배 어디든 호흡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에 초점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과정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인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호흡을 한다. 거칠면 거친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그대로 온전하게 호흡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본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는 모든 과정도 알아차려 본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공간도 알아차린다. 모든 호흡 하나 하나가 마치 내 인생에서 처음인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 마음이 여러 생각이나 감정으로 떠돌고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명료하게 깨어서 호흡하고 있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다. 마음이 떠도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 올 때마다 마음의 근육은 강화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황하는 마음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된다. 이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챙김 호흡 훈련으로 현재에 깨어있는 힘을 줄 것이다. 3분~5분 정도 실습을 꾸준히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조직이 깨어서 움직인다. 현재에 깨어서 집중하는 탁월한 리더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리더들의 공통 특징 존재
리더십, 성찰 습관서 시작
현재 집중하는 몰입 필요
감정 바라보는 훈련 해야

세 번째, 효과적인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는 먼저 몸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언제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력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리더들이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쉽게 바라볼 수 있게된다. 감정은 대부분 몸으로 나타난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생리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고해상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몸을 관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나면, 몸이 긴장하거나 떨리기도 하고, 열이나 땀이 나기도 하고, 또는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가슴의 답답함, 두통 또는 참기 어려운 충동이 올라오는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화가 나는 순간에도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훈련은 간단하다. 먼저 최근 1주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더 오래된 일이라도 상관 없다. 연습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사례를 선택하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오를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도 자세히 살펴보자. 계속해서 최근에 있었던 힘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해본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편안하게 몸의 변화를 바라본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만약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우리는 마음보다는 몸을 통해서 감정을 더 생생하게 경험한다. 훈련을 할수록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변화를 느린 화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몸의 느낌부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라. 그러면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더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자리는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참 많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걱정과 두려움, 외로움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착하고 성실한 리더일수록 타인에게는 친철하고 너그러운 반면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가혹한 경우가 많다.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조직과 조직 구성원을 먼저 챙기려는 경향도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 리더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나 자기를 가혹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과 자기 친절이다. 자기 친절이 없으면 내적 자원이 빨리 소진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온전히 발현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연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복잡하고, 힘든 것들을 살포시 내려놓는다. 괴로운 일도 잠시 내려놓는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롯이 편안함만을 가져 본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의 몸과 마음은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와 준 자신에게 칭찬을 해준다.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음의 말을 해보라.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구나.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구나. 지금까지 잘 와준 내 자신이 고맙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잠시 자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껴보라.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올려 손바닥으로 가슴을 감싸안는다. 손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호흡을 할 때마다 몸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바라본다. 친절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잠시 호흡하고 있는 몸을 느껴보라.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을 한다.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자신에 대한 친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사랑하는 힘이 배가 된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지가 자신을 잘 다루라"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행동을 매일 잊지 않고 실천하길 바란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8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9월 5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4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2시~5시 :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 매주 화요일 2시~5시 :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수료 후 전과목 USB 증정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120만원 (전과목 교재대 포함)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마하사
• 주 지 : 정 관 (속명 : 한도삼)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43번길 3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 축하 광고 접수안내
귀의 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진우 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봉축 드리며 이에 아래와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제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 축하 광고
■광고크기 : 5단컬러 100만원, 1/2단컬러 50만원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기획국 02)2004-8216
■담 당 : 표경희부장(010-7733-9343) jabi2018@naver.com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 접수처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지사장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지사장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지사장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지사장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지사장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지사장



대행 스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없이 한 생각에 뛰어넘어라

불타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법화경에 삼계화택이라는 비유도 있듯이 우리가 이 삼독으로 불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만약에 이 세계가 빌딩이라면, 우리가 그 빌딩 안에 있는데 빌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옴치고 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겠다는 생각이 생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생각만 있겠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하는 거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살아야겠다 하는 건 이차적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중세계가 불타는 지옥과 같느니라. 상세계와 중세계, 하세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자리에 있느니라. 과거가 흘러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몇 바퀴를 돌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몇 바퀴를 돌아도 어찌해서 저 산은 그대로 있는가?' 하는 거요.

좀 더 계산을 잘해 보세요. 자기 양심으로써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다면 '내 팔자' 소리도 안 나올 거고 '내 운명' 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또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닥 줄을 잡고 얼음판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아이들은 얼음이 녹는지 깨지는지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걷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시다가 화를 내면 얼음판을 걸어오면서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얼음이 얼른 녹으라고. 그래야 빠져 죽기 쉬우니까.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고, 그냥 극치에 이르러 마음이 팔팔 뛰면 얼음이 빨리 꺼지라고 막 뛰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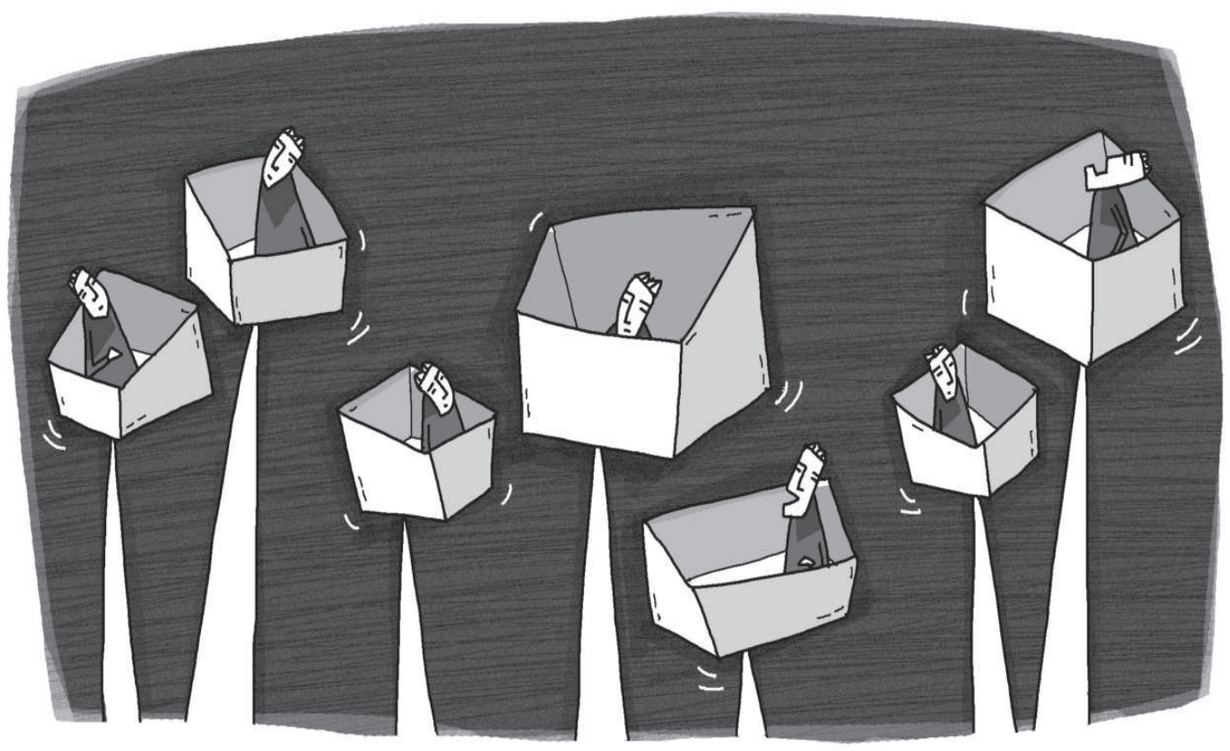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때로는 술 먹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다면 아주 집에다 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얼음판이 빨리 녹고 빨리 깨지고 빨리 빠지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족이 다 빠지고, 자기도 빠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려 달라고만 하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화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다 놔라." 이러죠? 그러면 모닥불을 놓지 않고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펄펄 뛰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가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모닥불을 놓고 뛰면 얼음은 금이 가고 빠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빠뜨리게 되죠.

"스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양반들도 계실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50%는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50%는 보이는 데서 돌아갑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밤에는 자면서 돌아가고 낮에는 깨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밤에 도는 거든 낮에 도는 거든,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있는 그 가운데에 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 놓는다면, 내가 망한 일도 없고 내가 흥하게 한 일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중심을 잡고 그래도 사람답게 걸었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람의 차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과 자기 소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게꾼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의 탓을 하거나 형제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애당초에 소임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넝마로 차원이 돼 있으니까 넝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자기가 금으로 차원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면 금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으로 사는 사람 자만하지 말고, 넝마로 사는 사람 너무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타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금과 넝마를 다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다 놓고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는 데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없어집니다. 차원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니라.'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량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돌아가느니 저렇게 돌아가느니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 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앞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거두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아, 안 되겠구나. 비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리의 법칙을 우리들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동물로서 첨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그냥,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붙어서, 불이 번쩍 들어오게 돼 있죠. 평소에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신이 되겠습니까. 항상 자나 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닥쳐오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신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임을 제대로 하죠.

나도요, 여러분과 같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의 근본을 붙들고 생명

☞ 22면으로 계속



대행스님 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못난 자기 주장자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을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뛰시면서 부지런히 거기다 놓고 가시면, 그대로 바퀴의 굴림이 저절로 정신세계의 굴림과 물질세계의 굴림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병고액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 극심한 병고액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장자를 진짜로 믿을 수만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모두 못 믿어서 걱정이죠. 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니깐 자기를 부라고 그렇게 하죠. 자기 현재는 자라고 하고요.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항상 같이 돌아가는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하나하나만 개별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이 되기 전에 생물들이 생겨서 모두 극악하고 잡아먹고 무섭게 그렇게 살다가 그게 없어지고 인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할 만하니까 또 다른 건 다 없어지면서 이게 사람이 진화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진화를 해서 진짜로 부처님같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세생생을 두고 그분은 영 죽는 게 아니죠.

그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응신이 돼 줄 수 있단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에요. 다른 게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한 군데서 나오는데 보살들을 보면 전부 여러 가지 보살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손도 천, 이 천이라는 게 숫자를 두고 말한 게 아니죠. 천은 숫자 없는 거를 천이라고 해도 되죠. 발도 천, 눈도 천.

우리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인간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죠. 지수화풍으로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또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살아 보니깐요 똑똑하다고 아무리 그래 봐도 소용도 없고요, 안 똑똑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깐 그대로 묵묵히 사는 거예요. 살 뿐이에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져, 사람이. 쓰러지니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 좀 일으켜 줘. 어떻게 설 수가 없잖아. 일으켜 줘."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가다가 쓰러트린 게 누구냐 이겁니다. 일체 만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 없는, 문 없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아닌 나, 내가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 모습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 모두 움죽거리니까,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있는 거니깐요.

뭐, 잘났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종문서를 면치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렇구나. 그런데 종이 아니 되려면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면, 주인도 아니다. 그냥 자유스럽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그저 무조건 좋게 해서 사시는 대로 편리하게 거기 놓고 그렇게 진짜로 믿으세요. 믿어야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놓게 되죠. 무슨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고 '무슨, 내가 이걸 이렇게 믿어서 되나.' 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모두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고 모두 발에 밟히는 것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거든지 풀어서 순간 다 하는 거니깐요.

어떤 분이 그러십디다. 다 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이 절엘 왔는데 그냥 죽겠으니까 여기서 듣는 대로 무조건 그냥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일이 슬슬 그냥 거반 다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이 공부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이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암이라 인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수술을 할 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수술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거는 초기에 저거 한 건 혹시나 수술해서 좋은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면 외려 고생만 진탕 하고 식구들 고생만 시키고 식구들 굶어 죽이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생각들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원통해서요.

죽는 것이 원통하지 않다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살아날 수도 있어서 그냥 "아이, 난 여태 그냥 죽을 복도 없나 봐.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어." 이러고 그냥 하죠. 참 그래서 그 몹쓸 병을 가지고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외려 병원에 가서 그냥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쪽은 나았는데 다른 쪽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다 수술을 또 해야 되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삼자는 얘길 할 수가 없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땐 돈 없고 그렇게 너무 딱한 분들은 "댁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이렇게도 한 번 저렇게도 한 번,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렇게 지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하곤 그냥 말을 해 주죠. 그러면 어떤 땐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살다 보니깐 그냥 살아졌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더한 분이 계셔도 그것을 부처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이죠.

왜 에너지를 요만큼 가지고 에너지가 이만큼 나오는 걸 만드는 과학자들 있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 부처님 법을 진짜로 진실하게만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살길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느 부처님이 용하시다 하고 가서 저거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에 많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농사짓거나 뭘 했거나 쌀 한 바가지 얻어는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진짜로 농사를 지어서 남을 주고 내가 먹고 거침없이 걸림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타신을 믿느냐. 그런 건 믿으란 말 내가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대로 그 못난 자기의 주장자를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장자가 있어야 일체제불도 다 그 주장자를, 그 주장자 있는 사람한테나 주지 주장자 없는 사람한텐 주장자를 주질 않아요. 전에 임제 스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수 없느니라.

> 내가 온 자리를 알아야 갈 자리를 알죠.
> 내가 온 자리를 모르는데
> 어떻게 갈 자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상대성이 모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면 나도 편안하겠지만 나 하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세생생의 여러분이 진화하는 데도 걱정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말을 안 해도 벌써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이렇게 돌아요. 온기가 돌듯이, 김이 돌듯이, 구름이 돌듯이, 연기가 돌듯이 이렇게 돌아서 모두 그 진화하는 머리가 아주 나쁜 데로,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화를 해도 정말이지 이 인생살이 인생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겠다 하고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속 태우지 마세요.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요.

몸뚱이에 대한 착 놓는다는 게…

질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생사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는데 몸뚱이에 대한 착을 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우매한 중생에게 마음의 고삐 다잡을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러실 때는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나도 아라한이니라. 서로 도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자체가 무생실참 도리로서 들어가면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겉으로 끄달리질 않고 이 몸이 지금 죽든 이따가 죽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마 다르다고 할 겁니다. 계율이 수백 가지라도 계율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사람이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굶는다, 먹는다, 입는다 이런 거, 누가 뭐란다, 누가 나쁘게 생각한다, 누가 욕을 한다 이런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던졌는데….

이 몸을 던지느냐 이 몸을 안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 하나 던지지 못하니 욕심도 생기고 걸리기도 하고, 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망상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몸 하나 딱 버렸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봐도 좋은 게 없고 언짢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남이 웃으면 여여하게 웃고 남이 울면 여여하게 울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면 아주 여여할 겁니다. 편리하시구요. 내 몸을 살리려고 사린다면 모든 게 다 붙습니다. 일거일동 다 붙습니다. 하나 버리면 다 없는 것을, 하나를 중하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전부 붙습니다.

윤회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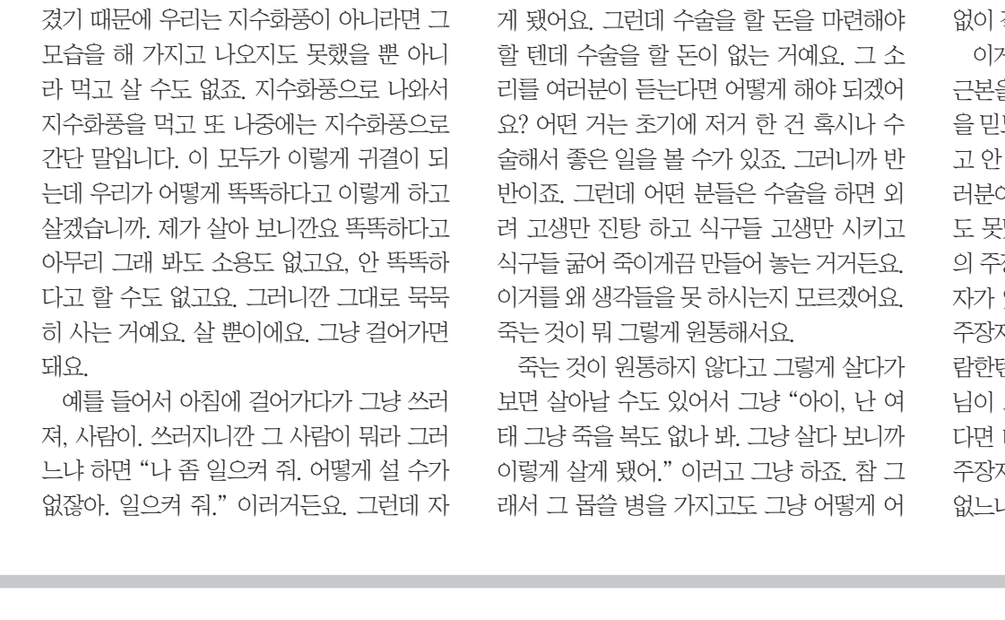
질문 제가 마음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종교인 친구가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지 못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윤회를 믿지 않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 한 말씀 일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가 항상 이런 말을 잘 쓰죠. 이 공부라는 것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구요. 좋다는 걸 어떻게 뒤집어서 속속들이 말로 하리까. 누구든지 차원대로 그 맛을 알고 차원대로 실험을 통해서 알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차원이 높아지는데, 그게 죽었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몰라서 차원이 낮으면, 요다음 생에 다시 또 돌아서 출현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차원에서 고를 못 면하고 애고를 못 면하고, 독 안에 든 쥐와 같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아서 차원이 높아지면 이 몸은 없어져도 다시금 자기 마음대로 출현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출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몸은 작지만 벌써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차원이 아주 높은 자기 영혼을 등장시켜서 모든 모습들, 의식들, 이 업식들을 전부 보살로 화하게 만듭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이 세상에 나도 애고로 나는 게 아니라 선도자로 나기도 하고, 꼭 스님이 돼서만이 아니라도 정말 그렇게 나시고, 또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모습으로 나지 않으셔도 한마음, 대천세계의 한손이 되고 한 발이 돼서,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아주 세밀히 보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죠.

이 모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일 년 지나가듯, 한 철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장갑을 꼈다 더러우면 벗어 버리는 거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이를 먹었다고 허망하게 생각도 마시고, 나이가 젊어서 좋다고, '이만하면 살겠지' 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그저…, 누구든지 대신 못 해 주니까요. 내가 온 자리를 알아야 갈 자리를 알죠. 내가 온 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갈 자리를 알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FDA 등록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쿨~! 마스크 (연꽃문양/5색)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대량주문시 별도문의
5개 1셋트 27,500원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15,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22,000원

※ 3만원 미만 주문시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현불 논단

시대 언어와 종교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300만년만의 고독' 표현 나올 정도로
현재 인류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
물질적으로 발전했으나 정신 피폐해져
인류 정신 문명 유지하던 종교도 약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종교 변화해야
과학기술과 충돌 않고 객관성 가져야
교당 벗어난 '영성 공동체' 확대 전망
부처님 가르침 21세기 언어로 전해야

현재의 인류는 '300만년만의 고독' 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18세기부터 현재까지 300년간 진행돼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류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체노동에서 벗어났음에도 왜 '300만년만의 고독' 라는 상황에 도달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인류보편의 정신적 질서를 유지해오던 종교적 도그마의 약화 내지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의식을 창조주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우주와 생명 의 기원에 대해 제법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상태까지 확장시킴으로서 창조주의 존재와 역할이라는 성서적인 서술에 기반한 기독교적 도그마에 대해 점차 더 깊은 회의감을 품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교적 도그마 또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부처님께서는 8만4천 여가지의 가르침을 내리셨기에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급격하고도 충격적인 사회질서의 변화가 초래한 개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에 비해 그동안 개인의 부단한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해온 전통적인 불교의 도그마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거나 대체해야하는 변혁의 갈림길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과연 '300만년만의 고독' 에 처한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종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할 것이나 불교 수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21세기의 종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충돌하지 않는 '대칭성' 과 '객관성' 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절대적 창조자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로 설정된 기독교적 관계를 비대칭적 관계로 보면 그 반대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상' 과 함께 그 일부로 속해있는 인간의 '의식' 이라는 불교적 관계를 대칭적 관계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칭적 관계에 기반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의식으로 그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관찰하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는 종교적 '객관성' 도 동시에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향후의 종교 활동은 극단적인 소외감에 대한 대안으로 사찰이나 교회를 벗어나 명상과 치유, 영성과 생활이 일치된 공동체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안락행(Sukha Vihara)' 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부터 종교인은 신의 통치 대리인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스승이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며, 마음의 치유자이면서 동시에 화해와 관용의 조정자로서의 다중적인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21세기를 탈종교의 시대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20세기 초 서구의 여러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불교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기원이 아닌 우주의 실상을 설명하는 종교이며, 따라서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불교는 더욱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주적 종교' 가 된다고 간파했던 의미를 우리 스스로 잘 새겨보아야 한다.

이제 소외되고 고독한 인류에게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계가 21세기의 언어와 방편으로 전해줘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자신의 보물을 찾아라

다음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지니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가정교사 설리번을 만나 장애를 극복하고, 명문으로 꼽히는 래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훈장인 '필라델피아 최고 훈장' 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헬렌은 자신이 지닌 보물이 무엇인지를 진즉에 깨달은 것입니다. 헬렌이 자신을 부정하고 운명을 탓했다면 이름을 남기기는커녕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을까요?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자아상을 만들 수 있고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가 장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자만심보다 교만심보다 더 나쁜 것이 자신에 대한 비하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못난이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여쁘게 봐줄까요? 자신이 가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보물을 닦아 쓸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의 잣대로 능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결코 자신이 지닌 능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실패 없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앞을 향해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보세요. 남들이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간다면 그만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개선돼야

전통사찰 보수 ·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목조건축물인 전통사찰의 특성상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노후화되고 뒤틀리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자칫 이를 방치하다간 그 가치를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할 때, 현 제도상으로는 전체 사업예산 중 20%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이 '자부담율 20%' 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책정된 기준으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문화재 보수정비시 자부담율이 0%인데 반해,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규제와 관리를 받는 전통사찰은 20%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불교공약으로 자부담 철폐를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심사보고서에서 역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시 자부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전격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 완화,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통사찰은 불교를 넘어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지켜져야 맞다. 자부담액에 대한 부담으로 보수정비 혹은 방재시스템 구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대통령 공약에 더해 자부담율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시각이 확인됐으니 희망적이다.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과감하게 자부담제를 폐지해 전통사찰 보존유지의 사각지대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교정포교 활성화, 교정인 불자 후원부터

교정인불자연합회가 30여년 만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안양 선운정사가 있는 보궁빌딩 3층이다.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교정교화시설은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벌과 함께 수형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향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종교는 이러한 교정교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법 활동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정교화 포교라는 말이 있다. 재소자들이 전도된 가치관과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는 양심과 지혜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교정교화 포교에서 교화 공무원은 10%가 안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종교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불자 직원들의 신행단체인 불심회가 있다. 이 조식들이 연계된 단체가 바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다.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직이기에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인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교정인불자연합회는 회원 감소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기법회 등이 열리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높은 안양지역에 마련된 사무실과 함께 지도법사 위촉을 통해 교정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의 토대가 생겼다. 교정인불자연합회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녹야원


부다가야


항하사


나란다대학터


영축산


죽림정사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기원정사


타지마할


델리문화탐방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살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